



신한생각 4926호

Top down

신흥국전략

인도 주식시장: NIFTY50 신고가 경신의 배경

Bottom up

산업 분석

건설 (중립) 주요 건설사 Corporate Day 후기
은행 (비중확대) 밸류업 세계 혜택 공개, 은행주 대응은?

기업 분석

에이비엘바이오 (298380/Not Rated)
드날리 4조에 항암제 L/O 더해진다
네오셈 (253590/Not Rated) CXL 관련주 이상의 존재감

◆ 해외 주식 및 ETF 추천 종목

[주식]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테슬라, 버티브, 일라이 릴리, 베이팡화창, 폭스콘산업인터넷, 히타치

◆ 국내 주식 추천 종목

[MP] 반도체, 자동차, 조선 ↑ VS 철강, 화학, 에너지 ↓
[중소형주] 티앤엘, 토비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대한유화, 태광, 인카금융서비스, 원익QnC, 파라다이스, SOOP

KOSPI
2,794.01 (+0.47%)

KOSDAQ
836.10 (+0.75%)

KOSPI200선물
385.30 (+0.47%)

원/달러 환율
1,388.90 (+2.00원)

국고 3년 금리
3.177 (+0.8bp)



인도 주식시장: NIFTY50 신고가 경신의 배경



China Equity Strategist

신승웅

☎ (02) 3772-3175

✉ aidenshin@shinhan.com

낙관적 전망의 세 가지 축: 1) 이익(EPS), 2) 수급(SIP), 3) 금리인하

인도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진다. 집권여당(BJP) 단독 과반 실패로 총선 개표 일(6/4) NIFTY50은 5.9% 급락했으나 충격을 딛고 신고점 경신을 거듭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PSE(국영기업), 인프라, 에너지 등이 수익률 상위를 차지해 시장은 여전히 모디노믹스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갖는 고민은 ‘비싼데 더 갈 수 있을까?’로 귀결된다. 현재 NIFTY50 12MF P/E는 21.7배로 역사적 고점(23배)까지 상승 여력은 남아있으나 분명 부담스러운 레벨이다.

하지만 지수 레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1) 이익(EPS), 2) 수급(SIP), 3) 금리 인하 공히 우호적인 환경에서 인도주식 비중을 축소할 유인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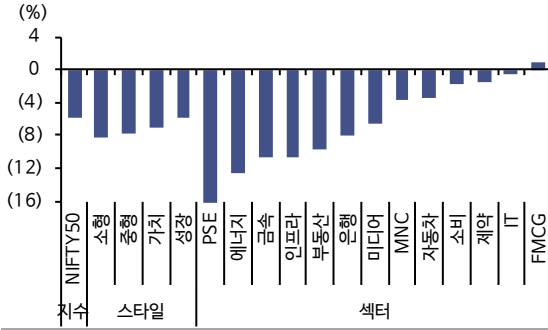
1) 2분기 들어 (-)를 기록하던 이익수정비율은 최근 (+)로 전환했다. 12MF EPS를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3분기 이익모멘텀 강화를 시사한다. 견조한 내수경기가 이어지면서 25F EPS 추정치도 최근 상향 조정을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12MF EPS(현재 1,110p)는 25F 추정치(1,320p)와 껍을 축소하며 우상향할 공산이 크다. NIFTY50 주가지수와 12MF EPS는 장기간 동일한 궤적을 그려왔다. EPS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주식시장 방향성은 유효할 전망이다.

2) 인도 증시의 핵심 수급 주체는 개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뮤추얼펀드다. 외국인 수급은 경기, 금융환경,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입과 이탈을 반복한다. 이와 달리 SIP(Systematic Investment Plan, 적립식투자계획)로 대변되는 로컬 수급은 지난 수년간 매월 순유입을 기록할 정도로 변동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 5월 SIP 순유입액은 전년동월대비 41.7% 증가한 2,090.4억루피(약 3.5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IP는 이미 인도 중산층의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인도 경제가 성장한다면 주식시장으로 수급 유입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3)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점증한다. 5월 CPI 상승률은 +4.75% YoY를 기록해 컨센서스(+4.9%)를 하회했다. 9개월래 인도중앙은행(RBI) 목표 범위인 4%±2%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은 불안요인이나 RBI는 최근 양호한 문순(우기) 전망에 기반해 식품 물가 압력 완화를 예상했다. 정부도 농산품 수출 제한과 수입세 인하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RBI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하반기로 형성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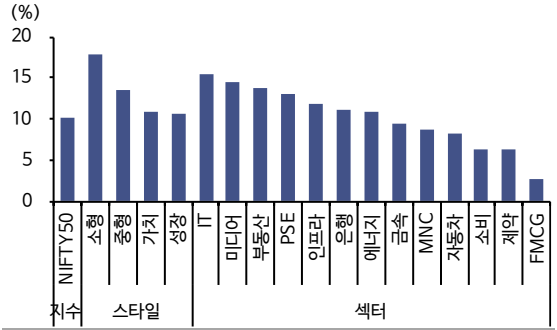
종합하자면 견조한 이익성장과 안정적인 수급 유입이 지속되는 인도 주식시장은 쉽사리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24F EPS 증가율과 모멘텀 상위 업종은 경기소비재, 소재, 산업재, 부동산이다. 내수성장파 모디노믹스 수혜가 집중되는 업종이다.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제시한다.

총선 개표일(6/4)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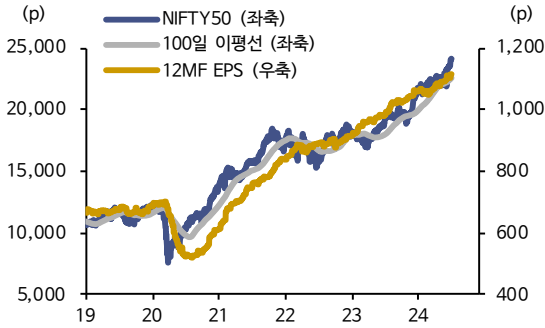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총선 이후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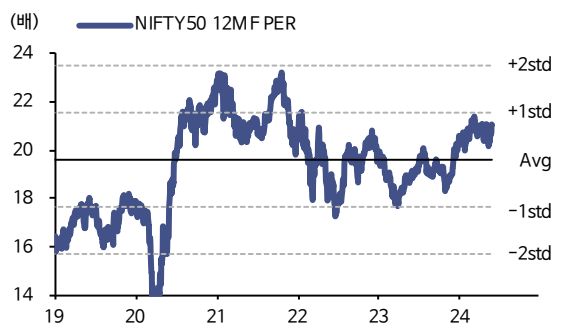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12MF EPS와 동일한 궤적을 그리는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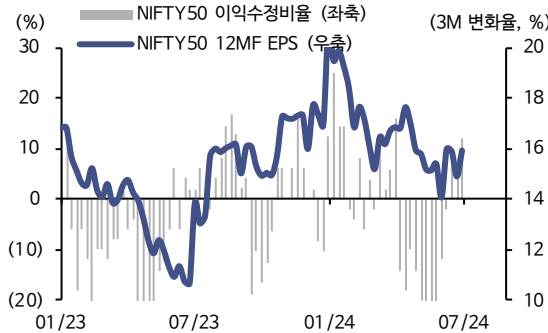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여전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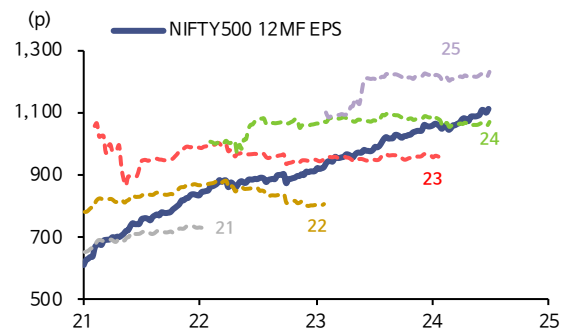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 전환한 이익수정비율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12MF EPS 연말까지 우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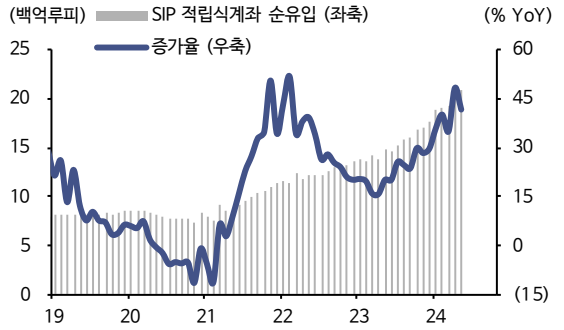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외국인 수급은 부침을 겪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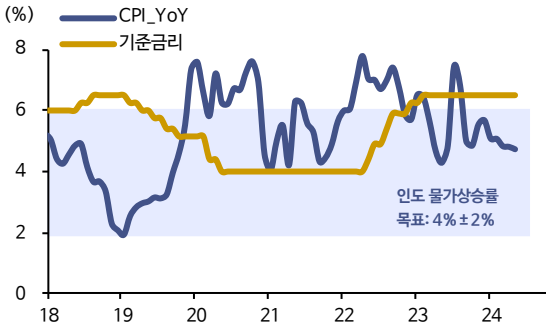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로컬 수급은 일관되게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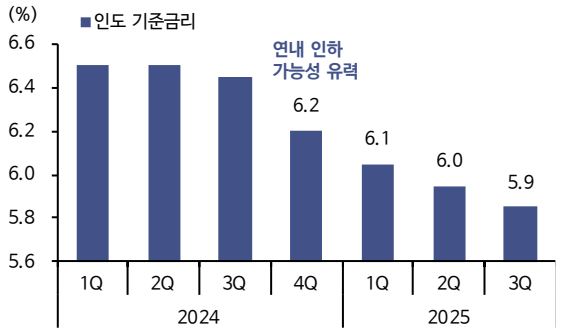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인도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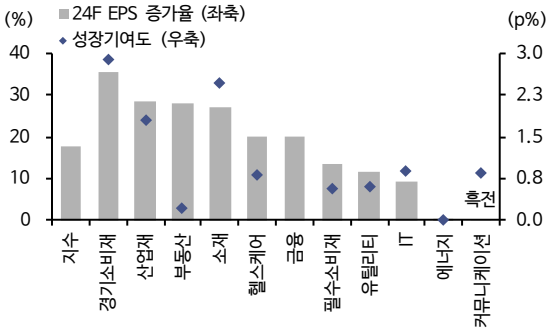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시장 컨센서스는 하반기 인하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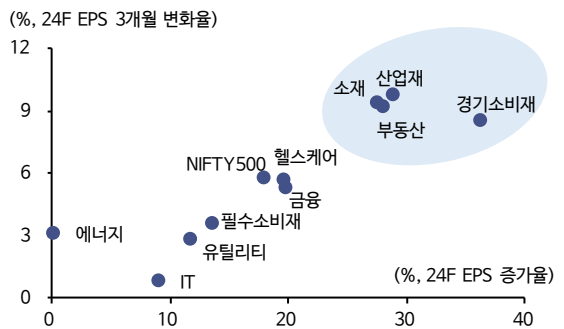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24F EPS 증가율과 성장기여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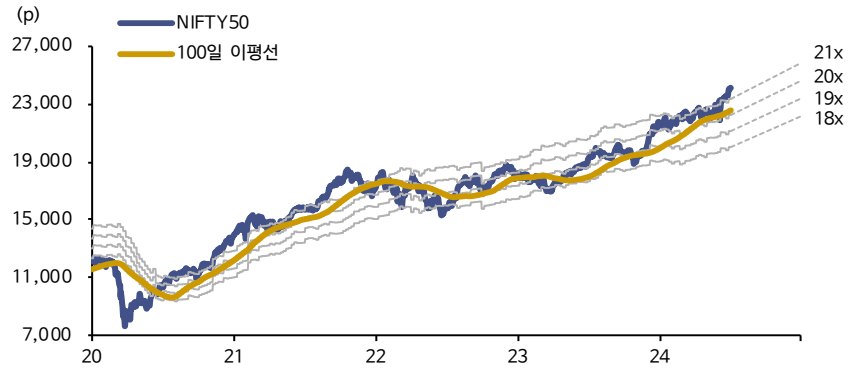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주: NIFTY500 기준

EPS 증가율과 모멘텀 상위 업종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주: NIFTY500 기준

NIFTY50 12개월 선행 PER 밴드



자료: Refinitiv,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신승웅).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중립 (유지)

김선미 연구위원
☒ sunmi.kim@shinhan.com

신한생각 | 당분간 압축 투자, 2025년 비중 확대 권고

더딘 주택분양, 무난한 2Q 실적 기반 건설업종 투자의견 중립 유지. 하반기까지 실적, 수주 모멘텀 제한적. 그러나 강화되는 해외부문 경쟁력, 주택시장 회복 시그널 고려 시 연말 업종의견 상향 가능할 전망. 그 전까지는 개별 이슈 업체(한샘, 삼성E&A, HDC현산)로 압축 투자 권고

4월 이후 신규분양 둔화, 건설사 실적 개선 기대감 약화

6/24~28일 주요 건설사 대상 Corporate Day 진행. 업체들과 미팅에서 확인한 implication은 다음과 같음. 시간은 필요하나 2025년은 비중확대 가능

1) 더딘 주택분양. 매출 양호하나 mix 개선은 더딘: 주요 건설사 YTD 분양은 연간계획 대비 24(HDC현산)~46%(DL이앤씨)로 기대 이상이었던 1Q 대비 속도 둔화. 일부 대형 현장 일정 조정이 원인이며 연간 계획은 유지. 향후 실적 영향 파악 위해서는 3Q 공급 확인 필요. 건설원가 안정화 및 공사비 증액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 기대 보다 mix 개선은 느릴 전망

2) 대형사 주택분양 점유율 확대 전망: PF 구조조정으로 건설사 자금조달 타이트해졌으나 타격은 중소형 건설사에 집중. 유동성/실적 여유있는 대형사로는 자금 지원 원활, 이는 상대적으로 대형사 시장 대응력 개선 및 점유율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 높음

3) 주택공급 전략, 업체별 차별화 명확: 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반등 시점에도 업체별 주택사업 전략은 1) 유동성 확보 및 신규분양 공급 조절 등의 리스크 관리(DL이앤씨, GS건설)와 2) 준·자재사업 확대(HDC현산, 현대건설)로 나뉨. 향후 주택시장 회복기 업체별 실적은 차별적으로 전개 예상

4) 주택거래량 개선, 실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회복이 필요: 주요 B2C 건자재 업체들 전국 영업망 고려 시 거래량 회복이 실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 회복이 필요. 실적은 하반기 점진적 개선 기대

5) 풍부할 2025년 해외수주: FEED to EPC, 수의계약 기반 구체화되는 대형 수주 안건 많은 상황(현대건설 > 삼성E&A > 대우건설). 연간 수주 규모 변동성 있겠으나 제한된 경쟁 하에 해외부문 실적 성장 지속 가능할 전망

무난할 2Q24 실적, 수익성 보다는 매출액이 실적 변수

2Q24 건설업종 실적은 전반적으로 컨센서스 부합/소폭 하회 전망. 더딘 신규분양은 2025년 이후의 실적 변수이며 3Q 분양실적까지 확인 필요. 업체별로 PF 구조조정 및 미분양 여파도 제한적. 지방 현장 추가 원가가 예상되는 현대건설(현대ENG, 전남 오룡APT) 외 업체별로 파악된 일회성 비용 없음. 2Q에도 수익성 보다는 매출액이 업체별 실적 드라이버가 될 전망

개별업체 주요 Corporate Day 내용

현대건설

- 현황 업데이트

: 5월말 기준 신규수주 13.7조원, 계획 상회. 연간 가이드선 달성 가능

: 매출액 YoY +40% 이상 성장 중. 90조원 이상의 수주잔고(준자체사업 미포함) 기반 2Q에도 8조원 중반대 지속 가능 예상

: 수익성 개선은 다소 더딜 전망. 원자재가 부담 지속. 해외수주 전략 변화 및 국내 준자체사업 시공/시행이윤 조기 확보 통해 점진적 개선 추진. 2Q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전남 무안 오룡사업장 관련 추가원가 반영 가능성 있음

- 국내외 주요 수주 파이프라인

: 해외수주는 하반기 현대엔지니어링 안건이 더 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서 3건 합산 6조원 규모. 현대건설 본사는 사우디 하라드PJT, 네옴시티 등

: 현대건설, 현재 FEED to EPC 준비 안건 4~6개 보유(사우디 LTC, 화공PJT, 미국 투자건, 국내 가스전 등. 해외는 각각 조단위.). 2025년 EPC 전환 목표. 2025년 메인 프로젝트는 불가리아 원전, 파푸아뉴기니LNG. 올해는 준비 시간

: 주택, 주요 준자체사업(CJ가양동 1.6조원, 그 외 합산 7~8천억원 규모) 12건 중 올해 5~6건, 2025년 6건+ 전환 목표. 사업 착공과 함께 PF 보증금액은 현재 4.2조원에서 올해 말 2조원 이하, 2025년 1조원 이하로 축소 예상

- 신규분양

: YTD 별도기준 약 5,600세대. 대형 현장 3Q로 이연, 연간 목표 2만세대 유지

: 공사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발주처도 인지 중

: 신규공급 증가로 미분양 약 5천세대 넘음. 공사 진행되며 점진적 해소 예상

: CJ가양동 사업은 3Q 착공 목표. 시행이윤을 배당형태로 받을지 시공비에 반영해 조기 인식할지는 미정. 최대한 조기 배분할 수 있도록 협상 예정

- 현금흐름

: 1Q보다 2Q 개선. 영업현금흐름 + 기대. 입주잔금 회수되며 영업현금흐름은 3Q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연말 순현금은 전년말 수준까지 회복 예상

삼성E&A

- 현황 업데이트

: YTD 신규수주 10.8조원 이상(공시 수주만 취함). 파드힐리, P4, 5 포함

: 2Q 실적 특이사항 확인된 바 없음. 대형공사 준공/2023년 수주 부진으로 일부 매출 공백 있겠으나 분기별 변동 크지 않을 것

- 현재 추진 중인 수주 파이프라인

: 카타르 라스라판 에틸렌(\$5억)/말레이시아 SAF(\$10억) 3Q초로 이연, 오픈경쟁

: 사우디 산6 블루암모니아(\$20억), 말레이시아 OGP(\$15억) 하반기, 오픈경쟁

: 미국 블루암모니아, 비중동 석유화학PJT 2건 총 \$20억, 수의계약

: FEED to EPC 4건(인도네시아 TPPI(\$35억), 사우디 알루자인(약 \$20억), 국내 수소(\$15억), 말레이시아 사라왁 H2biscus(\$20억), 하반기 이후 EPC 전환 목표

- 사우디 발주예산 조정 중. 프로젝트 발주 지연 가능성?

: 사우디 LTC(Liquid to Chemical)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주요 사업. 최근 대 규모 LTC 사업계획 제시. 현재 3건 FEED 진행, 그 중 1건 삼성E&A 수주

: 파드힐리, 자푸라 가스PJT 이후 가스 보다는 석유화학 공중 발주 증가 전망

- 인력 Capacity 여유? 지속가능한 수주 규모?

: 올해 700명 추가 채용 계획. 채용 시 향후 12~13조원 연간 수주 가능할 체력

: 공사비 상승, 인력당 생산성 증가 고려 시 수주 가능 규모 과거 대비 확대. 필요하면 인도/태국 법인 통해 추가 채용도 가능. 현재까지는 무리 없음

- 비화공부문 수주 규모?

: 과거 3조원 내외가 평균. 2023년과 같이 7조원대 유지 어렵겠으나 평택/용인/미국 투자 마무리 전까지는 다시 3조원대로 축소되지 않을 전망

- 에너지전환(E/T) 프로젝트 업데이트?

- : 말레이시아 사라왁 H2biscus, 올해 말 FEED 후 2025년 EPC 전환 목표.
- : 올해 추진하는 FFED 상당부분이 E/T 안건. 아직까지 결과 확정 안건 없음

- 순현금 전망 및 주주환원?

- : 연말 순현금 2조원 예상(1Q24 1.3조원), 회사 가이드스(OP 8천억원, 연말 순현금 2조원/부채비율 100%) 달성 시 주주환원 정책 검토 예정. 국가 밸류업 강조 기조 하에 하반기 내 관련 공시하는게 목표

GS건설

- 현황 업데이트

- : 2024년 신규수주 목표 13.3조원(해외 5.4조원). 5월말 기준 4.7조원. 전남 동북가 허브 LNG 터미널 0.6조원, 이나마 구브라3 1.7조원, 브라질 세잔 하수처리 0.9조원은 아직 금융약정 확정되지 않아 수주로 미인식.
- : 호주 침매너털 얼리워크 800억원 2Q, 싱가포르 지하철은 9월, Suburban 레일 루프는 6월 이후로 지연

- YTD 신규분양 및 PF 현황

- : 연간 1.98만세대 목표. YTD 8,500세대(달성률 43%). 연간목표 유지하나 수익성에 따라 결정 예정
- : 현재 미착공PF 1.8조원. 올해 4~5천억원 본PF 전환 목표는 계획대로 진행 중. 신규사업에서 PF 브릿지론 추가되며 미착공PF 총 규모는 1.8조원 내외로 유지
- : PF 연장/대출 상황 양호. 중소건설사에게 PF 대출 어렵다보니 상위 건설사에게 자금이 몰리는 편. 자금 조달 원활하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PF 총량은 관리할 예정

- 주택 실적? 향후 지속 가능한 신규분양?

- : 2만세대 내외로 유지 예상. 현장 수 증가에 따른 품질/안전 이슈 관리 차원. 단 공사비 상승 고려 시 주택매출액은 안 빠질 수도. 변수는 자이C&A 등 자회사.
- : 수익성의 경우 1Q 기대 이상으로 좋았으나 2Q에도 준공정산이익 발생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움. 도급증액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규모 예측 어려움. 신규 프로젝트는 수익성 양호. 올해까지는 내실화, 본격 개선은 2025년 이후

- 유동성 상황? 이니마 매각?

: 입주예정물량 2024년 2만, 2025년 3만세대. 올해 OCF 플러스지만 큰 규모 아님. 기존에 진행하던 이니마 매각, 매출채권 유동화 작업 등 지속 진행 예정

: 이니마, 6월 IM, 7월 년바인딩 오피 받을 듯. 경영권 프리미엄 수준 확인 후 매각 지분 규모 결정 예상

- 본사 기준 (해외) 플랜트 지속가능한 수주 규모?

: 해외 대형 1건 + 국내외 중소형(2~3천억원 수준) 1~2개 정도가 일반적. 2024년은 이례적으로 좀 많은 수준

- 검단사고 이후 경쟁력 약화 가능성?

: 정비사업 브랜드 중요하지만, 지역별 시행사, 시공사 네트워크 등 고려 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 폭은 크지 않은 편. 정비사업 수주 위해서는 조합원들과의 유대관계 구축 등 1~2년의 준비기간 필요. 단기간 점유율 변화 미미

: 현재 자이 브랜드 재정비 컨설팅 중. 브랜드는 유지, CI, BI 일부 변경 정도

DL이앤씨

- 현황 업데이트

: 2024년 연간 신규수주 목표 11,6조원. YTD 신규수주 4조원 내외 추정. 올해도 하반기 수주 규모가 많은 편(특히 플랜트).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

: 신규착공은 5월까지 약 7,800세대로 연간 목표 46% 달성(DL건설 포함)

: 상반기까지는 YoY 실적 개선 더딜 것으로 추정. 매출액 YoY, QoQ 유사. 단 주택매출 감소를 플랜트 매출이 만회하는 양상 될 것

: 2Q 확인된 일회성 비용/도급증액 이익 등 없음. 일회성 원가 반영된 1Q 대비 주택원가율 소폭 개선 가능하겠으나 전반적으로 공종별 수익성 변화 미미 추정

- 올해들어 착공 증가 잘 되는 편. 이유?

: 상반기 착공 현장들은 모두 도시정비/지역주택조합. PF 현황과 무관, 공사비 협상이 잘 진행된 효과로 파악

- 주택사업에 대한 회사 스탠스? 대표이사 변경 후의 변화?

: 주택사업부 구조조정 언론보도 있었으나 확인된 바 없음. 자연감소 예상

: 내부 PF 리스크 제한적이나 어려운 업황 속 리스크관리에 집중하자는 전략. 아직까지 확인된 '빅베쓰' 내용은 없음. 디벨로퍼 사업들에 대해 사업성 평가 검토 중이며 리스크/사업성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 결정 예상

- 공사원가 안정화 추세 지속?

: 공사비 부담은 낮아진 상태. 신규사업장은 수익성 개선. 하반기 주택부문 수익성 회복 가능할 전망

- 주택실적 흐름?

: 주택매출, 2024년 3.2조원, 2025년 3.1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공사비 증액에 따른 매출 변동 여부는 확인 필요

- 현금활용 전략?

: 아직까지는 투자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 다만 정부 밸류업 강화 기조 하에 투자/성장 계획 구체화 필요. 이 과정에서 현금활용안 나오지 않을까 기대

- CCUS 사업 진행 상황?

: 올해 2천억원 정도 수주 목표. 하반기 목표로 추진 중

HDC현대산업개발

- 현황 업데이트

: YTD 신규분양 3,191세대로 연간 목표 1.3만세대 대비 24% 공급. 분양률 양호

: 일부 현장 분양 지연됐으나 일반적인 수준. 연간 1.3만세대 공급 가능 전망

- 광운대 분위기? 수요자 반응?

: 분양가 아직 미확정. 최근 국민평형 아파트 12억원대 분양가에 대해 합의점이 좀 생긴 듯. 공사비 증액 및 분양가 상승 추세에 거부감이 낮아진 듯

: 지역 자체가 개발되고 있고 연계 프로그램이 많아 분양리스크 있다고 보지 않음. 초기에 완판 어렵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서 소화 가능할 것

-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분양 더디게 올라올 경우 현금흐름 부담?

: 9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비는 현금으로 기납부. 초기완판 되지 않더라도 50~60% 분양률이면 사업비 충당에는 큰 무리 없음. 준공 직전에 일시적으로 현금 부족할 수 있으나 그 전후로는 자금수지 + 인 프로젝트

- 임대사업부문 운영 구조?

: 리츠 활용 시 준공 시점에 적용할지, 착공 시점에 할지 미정. 조만간 결정 예상

- 사업부문별 수익성 전망?

: 예전과 같은 전사 기준 OPM 15%은 무리. OPM 기준 10% 전후 예상

: 광운대는 평균 이상. 그 외 자체사업은 GPM 20% 내외 가능

: 일반건축, 복합개발 착공 전까지 현재 진행 중 안전으로는 다소 낮게 유지

: 토목, 이익률 양호하나 매출액 자체가 적어짐

- 2024년 이후 재무구조 전망?

: 2024년까지 순차입금 0.5조원 축소 전망. 25년 이후로도 꾸준히 감소 예상

: 광운대 역세권 사업 규모가 커 계약금/중도금 일정 따라 일부 분기 변동 전망

- PF 구조조정 영향?

: PF 리스크는 제한적. 현재 1조원 이상 자금 유지하려 하는데 NPL투자 검토 예정. 올해말 순차입금 5천억원 감소 목표이나 좋은 투자기회 있을 경우 우선순위는 투자에 둘 것(일반적으로 연간 4~5천억원의 토지매입 진행해 음)

한샘

- 현황 업데이트

: 5월 실적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부문별로 트렌드 1Q와 유사

- 1) B2C 홈퍼니싱: 중고가 라인 확대, 온/오프라인 통합 통해 YoY 5~10% 성장
- 2) B2C 리하우스: 거래량 개선 수혜 기대 높으나 2Q 실적까지는 아직 영향 나타나지 않음. 일반적으로 거래량과 동사 실적까지 시차는 3~6개월 수준. 다만 1Q 대비 2Q가 계절적으로 성수기라, 그 효과는 기대 가능. 전년도 기저 높아 YoY 성장은 어려울 수도
- 3) B2B: 올해까지는 매출 성장 기조 지속. 매출은 2025년 이후부터 둔화. 조합원 B2B 시장 진출해볼까 하지만 단기 실적 변수는 아님

- 거래량 효과가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점유율 하락 가능성?

: 현재의 주택거래량은 서울/수도권 중심. 전국 거래량 개선되어야 실적 유의미하게 나올 듯. 하반기 이후 실적 점진적 회복 기대

: 비브랜드로의 소비자 유출로 해석할 상황은 아님

- 단품판매 확대 지속? 수익성 효과?

: 단품 판매 비중 점점 확대 중. 리하우스 1Q 대비 2Q 이익률 개선 가능 추정

- 부문별 수익성?

: 공헌이익률 기준, 홈퍼니싱 20% 후반, 리하우스 20% 초중반, B2B 10% 내외

- 사옥 매각 진행 상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사 중. 6월 내 거래 종결 기대하기는 어려움

- 배당 업데이트?

: 1Q 배당성향 유지

한미글로벌

-현황 업데이트

: 신규수주 YoY 10% 목표대로 잘 진행 중. 1Q 국내사업부 수주 부진했으나 2Q 들어와 만회. 하이테크, 글로벌사업부문 모두 신규수주 양호한 흐름 지속

: 하이테크 사업부, 주요 업체 외로 후발업체들의 수주도 증가 추세. 전망 양호

: 글로벌 사업부, 네움시티 올해도 1건 수주. 중동은 상반기 라마단/휴가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발주가 더딘 상황. 하반기 수주 전망 양호.

- 네움시티 사업 축소 관련 타격?

: 사우디 발주예산 조정 중. 우선순위 조정 따라 네움시티 보다는 올림픽/엑스포와 같은 국제행사 관련 공사들에 예산 할당되는 듯

: 네움시티 수주 더더지더라도 Vision2030 물량은 꾸준히 확대. 리디오 금융센터, 도로, 병원, 리조트, 호텔 등 수주 안건 풍부

- 국내외 사업 CM/PM 수수료율?

: 정해진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구조라기 보다는 투입인력 * 객단가로 계산. 프로젝트마다 수수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균이 국내는 약 3%, 해외 4~5%

: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수수료 수익 증가 효과는 없음. 투입인력 수 및 객단가가 결정. 올해부터 객단가 일부 올림. 단 이익률 보다는 매출 규모 측면에 기여

- 인력 충원 상황?

: 되는 만큼 계속 충원 중. Capacity(인력) 있으면 수주 추가 확보 가능. 상반기 약 120명 증가. 주요 발주처와 인력 계획 협의하며 수주 추진 중

- 데이터센터/물류센터 등 국내 사업부 분위기?

: 물류센터는 물량 둔화세. 데이터센터는 외국계, 금융권 투자가 많아 CM 수요 있음. 국내부문도 상반기 보다 하반기 전망이 좋음

- 재건축 사업 진출 관련?

: 재건축사업 수주 몇 건 증가. 국내 주택사업은 인력투입이 적은 편. 품질/공기 관리가 핵심인데, 최근 공사비 상승 및 공기 지연 사례 증가하면서 CM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 아직 실적으로 눈에 띌 정도의 변화는 아니나 중장기 기대

- 향후 3년 정도의 매출/수주 전망?

: 중동부문 사업기회 풍부. 문제는 인력 Capacity. 15~20%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M&A를 통한 인력 확보가 중요. 추가 인수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 중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선미)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장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밸류업 세제 혜택 공개, 은행주 대응은?

2024년 7월 4일

비중확대 (유지)

은경완 연구위원

✉ kw.eun@shinhan.com

박현우 연구원

✉ phw@shinhan.com

신한생각 | 글로벌 은행주 신고가 랠리에 동참

글로벌 은행주 신고가 랠리에 국내 은행주도 동참. 안정적인 실적 흐름 유지와 점진적인 주주환원을 개선이 주가 상승의 공통 배경. 정부의 강력한 정책 효과와 밸류업 의지를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현재 진행형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전망

당사 은행업종 커버리지 8개사 기준 2분기 예상 지배주주순이익은 4.5조원 (+5.3% YoY)으로 컨센서스 부합 전망. 시중금리 하락 속에 NIM은 전분기 대비 3bp 내외 축소. 대출성장률은 0.3~3.8%로 은행별 차별화. 기업대출이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가계대출 수요도 기대 이상. 수수료이익은 평분기 수준으로 무난. 반면 기타비이자이익에선 환차손 인식 불가피. 판관비는 특이 요인 부재. 총당금은 부동산 PF 재분류에 따른 추가 총당금 전입 예정. 대형은행 기준 약 천억원 내외로 파악. 이 밖의 일회성 요인으로 홍콩 H지수 회복에 따른 ELS 관련 일부 환입 발생. 종목별로는 대형은행의 약진 속에 부동산 PF 부담이 컸던 DGB금융지주의 실적 부진 예상. 주주환원정책의 경우 1) 대형은행/KB금융지주 분기배당 및 BNK금융지주 중간배당 지급, 2) KB금융 약 4천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 기대

정부, 밸류업 기업 세제 혜택 방안 공개

기재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가장 중요한 사안. 밸류업 기업(ex. 주주환원 금액이 직전 3년 대비 5% 초과)의 경우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추진. 세부적으로 현재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종합과세 최고세율은 45%에서 25%로 인하.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식 공개에도 1) 정책 모멘텀 피크아웃, 2)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 등의 우려가 차익실현 욕구 자극. 실제 전일 은행주는 오전 상승 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며 마감(ex. KB금융 6.9% → 1.4%)

하반기에도 밸류업 대장주 지위 유지

최근 은행권은 배당성향 상향 보다는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를 통한 총주주환원을 상승을 도모. PBR 0.4배의 극단적인 저평가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소각이 주가 상승에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 물론 점진적인 DPS 상승 기조도 유지 중.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만큼 세제 혜택 수혜 향유 가능. 대형은행을 필두로 하반기 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제출 예정. 원론적인 내용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하며, 업종 내 최고의 자본비율과 이익체력을 보유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Top picks로 추천

2Q24 Earnings Preview I

(십억원)	2Q24F	2Q23	(% YoY)	1Q24	(% QoQ)	컨센서스	(% diff)
KB금융	1,530.4	1,499.1	2.1	1,049.1	45.9	1,446.9	5.8
하나금융지주	1,039.2	918.7	13.1	1,034.0	0.5	958.7	8.4
우리금융지주	812.0	625.2	29.9	824.5	(1.5)	805.4	0.8
기업은행	606.7	664.0	(8.6)	780.8	(22.3)	665.5	(8.8)
BNK금융지주	211.5	195.9	8.0	249.5	(15.2)	212.7	(0.6)
DGB금융지주	35.6	141.8	(74.9)	111.7	(68.2)	117.7	(69.8)
JB금융지주	171.7	162.8	5.5	173.2	(0.9)	168.3	2.0
카카오뱅크	110.3	82.0	34.5	111.2	(0.8)	108.3	1.8
은행업종	4,517.4	4,289.3	5.3	4,334.1	4.2	4,483.5	0.8

자료: 각 사, 신한투자증권 추정

2Q24 Earnings Preview II

(십억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순이자이익	3,178.2	2,247.8	2,214.0	1,984.4	736.1	423.2	499.3	306.0
이자수익	7,706.3	6,171.4	5,515.1	4,789.9	1,753.9	1,062.6	922.8	591.8
이자비용	4,528.2	3,923.6	3,301.1	2,805.4	1,017.7	639.3	423.6	285.8
순수수료이익	932.4	588.0	487.8	119.9	67.9	52.7	23.3	9.1
수수료수익	1,334.5	885.3	738.3	200.6	103.5	77.1	51.0	73.7
수수료비용	402.1	297.3	250.5	80.7	35.6	24.4	27.6	64.6
기타비이자이익	135.6	85.1	(94.6)	(6.3)	24.1	76.4	5.2	15.8
총영업이익	4,246.2	2,920.9	2,607.3	2,098.1	828.1	552.3	527.8	330.9
판관비	1,655.1	1,064.9	1,051.6	740.1	353.5	246.5	188.5	121.1
총전영업이익	2,591.1	1,855.9	1,555.7	1,357.9	474.6	305.8	339.4	209.8
총당금전입액	570.4	415.4	461.3	547.3	193.6	257.1	108.9	61.2
영업이익	2,020.8	1,440.5	1,094.4	810.6	281.0	48.7	230.5	148.6
영업외손익	38.3	(43.7)	8.1	2.1	4.0	(1.4)	1.1	(1.6)
세전이익	2,059.1	1,396.8	1,102.5	812.7	285.0	47.3	231.6	147.0
법인세비용	514.8	349.2	275.6	203.2	68.4	11.4	56.7	36.8
당기순이익	1,544.3	1,047.6	826.9	609.5	216.6	35.9	174.9	110.3
지배주주	1,530.4	1,039.2	812.0	606.7	211.5	35.6	171.7	110.3
비지배자분	13.9	8.4	14.9	2.8	5.1	0.4	3.1	0.0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은행업 Valuation

	단위	값	비고
12M Fwd ROE	(%)	8.6	신한투자증권 은행업 유니버스 기준
Cost of Equity	(%)	9.3	
Risk Free Rate	(%)	3.2	국고채권 3년물 금리
Risk Premium	(%)	7.0	신한투자증권 기준
Beta	(배)	0.9	종목별 52주 주간 베타 산술평균
COE 조정계수	(%)	8.0	과거 15개년 KOSPI 대비 할증 폭
Adj. Cost of Equity	(%)	17.3	Cost of Equity + COE 조정계수
Eternal Growth	(%)	0.0	영구성장률 0% 가정
Adj. Fair PBR	(배)	0.50	
Premium/Discount	(%)	(15.7)	종목별 Premium/Discount 산술평균
Target PBR	(배)	0.42	
현재 시가총액(7/3)	(십억원)	82,046	신한투자증권 은행업 유니버스 기준
목표 시가총액	(십억원)	95,411	신한투자증권 은행업 유니버스 기준
Upside Potential	(%)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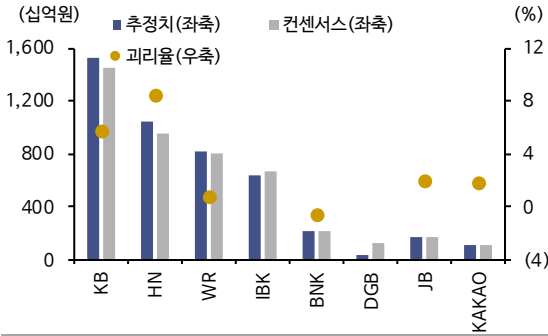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주: 카카오뱅크 제외 기준

종목별 목표주가 산출 내역

(%)	KB금융	하나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기업은행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JB 금융지주	카카오 뱅크
12M Fwd ROE	8.3	9.1	9.0	8.3	7.1	6.2	11.9	9.3
Cost of Equity	11.2	12.3	8.8	8.1	8.8	6.9	9.1	6.4
Risk Free Rate	3.2	3.2	3.2	3.2	3.2	3.2	3.2	3.2
Risk Premium	7.0	7.0	7.0	7.0	7.0	7.0	7.0	7.0
Beta	1.2	1.3	0.8	0.7	0.8	0.5	0.9	0.5
COE 조정계수	8.0	8.0	8.0	8.0	8.0	8.0	8.0	0.0
Adj. Cost of Equity	19.2	20.3	16.8	16.1	16.8	14.9	17.1	6.4
Eternal Growth	0.0	0.0	0.0	0.0	0.0	0.0	0.0	3.0
Adj. Fair PBR (배)	0.43	0.45	0.53	0.52	0.43	0.42	0.70	1.83
Premium/Discount	30.0	10.0	(30.0)	(30.0)	(30.0)	(40.0)	(20.0)	(10.0)
Target PBR (배)	0.56	0.49	0.37	0.36	0.30	0.25	0.56	1.65
12M Fwd BPS (원)	167,218	156,420	47,461	46,211	34,938	37,989	29,721	16,241
목표주가 (원)	94,000	77,000	18,000	17,000	10,000	9,500	16,500	27,000
현재가 (7/3, 원)	84,400	64,600	14,640	14,050	8,630	8,060	14,790	20,800
Upside Potential	11.4	19.2	23.0	21.0	15.9	17.9	11.6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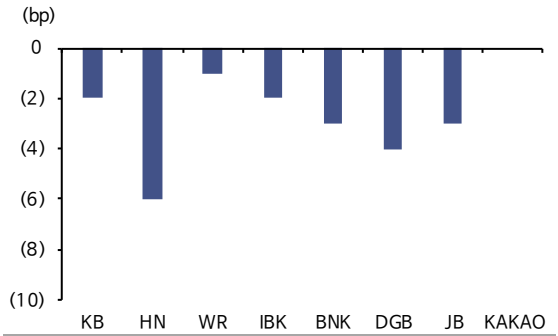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주: 카카오뱅크는 2027F ROE/BPS 기준

2분기 순이익 추정치 및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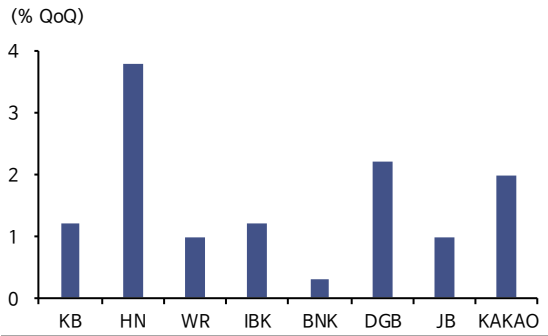
자료: 각 사, FnGuide, 신한투자증권

2분기 NIM -3bp Qo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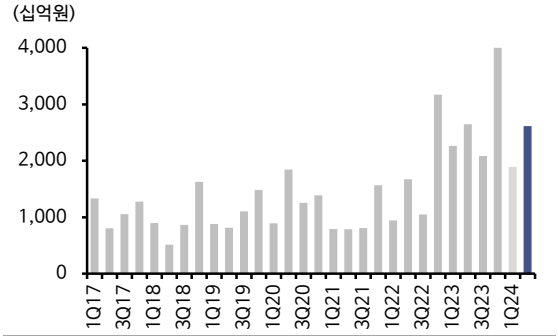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신한투자증권

2분기 대출성장률 +1.8% Qo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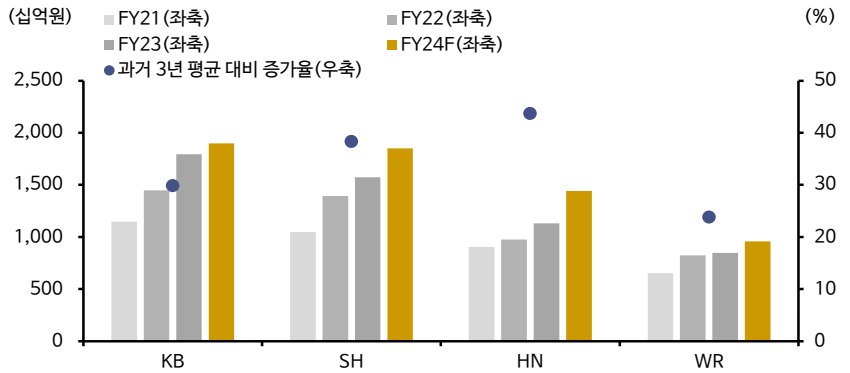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신한투자증권

커버리지 8개사 총당금 전입액 추이 및 전망



자료: 각 사, 신한투자증권

4대은행 총주주환원 금액 추이 및 전망



자료: 각 사, 신한투자증권

주: 신한지주는 컨센서스 수치 준용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은경원, 박현우)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를 기초자산으로 ELS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하나금융지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선물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하나금융지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옵션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어,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에이비엘바이오 (298380)

드날리 4조에 항암제 L/O 더해진다

2024년 7월 4일

✓ 투자판단	Not Rated	✓ 목표주가	-
✓ 상승여력	-	✓ 현재주가 (7월 3일)	26,900 원

신한생각 이중항체 항암제 빅파마 L/O 통한 가치 입증될 것

사노피와 뇌투과 플랫폼 적용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을 2022년 1.3조원 기술이전 후 임상 1상 진행 중. 그러나 이중항체 항암제는 빅파마 기술이전 및 검증이 부재했던 상황. 연내 이중항체 항암제 ABL503, ABL103의 빅파마 기술이전 가시성 높아 기대감 증가에 반영될 것

피어그룹 드날리 BBB서틀 검증으로 어느새 시총 4조

사노피와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 임상 1상 순항 중. 최근 피어그룹 Denali가 로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트론티네맙 임상 1/2상 중간결과 발표하며 BBB서틀 검증이 완료되어 시총 4조원 중으로 저평가 판단

지난달 I-MAB과 공동개발 중인 ABL111이 BMS의 옴디보, 화학요법에 더해져 위암 1차 치료제 진입위한 3제 병용 임상 개시. ABL503과 ABL103 이중항체 2개가 연내 기술이전을 목표로 인 것으로 추정. 빅파마로부터 이중항체 항암제 첫 검증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

2026년 상업화될 것으로 계획 중인 ABL001 담도암 2차 치료제 또한 전 세계 Best-in-class 제품으로 기대. 2025년 임상 2/3상 결과 발표 및 FDA로부터 Fast track 지정되어 2026년 상업화 목표로 매출 또한 기대

Valuation & Risk

2025년 이중항체 ADC 개발 및 임상 1상 IND 3건 신청을 목표로 Lonza의 자회사 Synaffix의 ADC 기술을 도입해 공동연구 진행 중. 이를 위해 자금 1,400억원 조달하였으나 2025년 사노피, 시스톤, 유한양행을 통해 약 600억원 이상 마일스톤 수취 및 L/O 계약금으로 약 4,000억원 확보 및 2026년 ABL001 상업화 시 안정적 재무구조 기대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19	N/A	N/A	N/A	N/A	N/A	N/A	N/A	-
2020	N/A	N/A	N/A	N/A	N/A	N/A	N/A	-
2021	5.3	(52.3)	(43.6)	(23.8)	(77.8)	18.6	(19.9)	-
2022	67.3	0.9	3.2	341.0	5.1	15.8	328.8	-
2023	65.5	(2.6)	(2.6)	(444.7)	(3.7)	15.9	(42,115.8)	-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계약/바이오]

엄민용 연구위원
✉ my.eom@shinhan.com

정희령 연구원
✉ hr.jung@shinhan.com

R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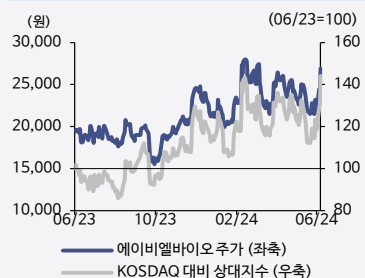
실적추정치	유지
Valuation	유지

시가총액	1,292.5십억원
발행주식수(유동비율)	48.0백만주(69.4%)
52주 최고가/최저가	28,000 원/15,530 원
일평균 거래액 (60일)	15,369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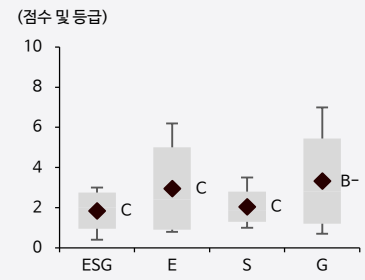
주요주주 (%)	
이상훈 외 12인	30.6
국민연금공단	6.1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11.9	8.2	37.0	11.6
상대	13.0	13.9	45.8	17.3

주가



ESG 컨센서스



I. 뇌투과 플랫폼 4조원에 항암제 가치 더해진다

로슈의 트론티네맙 BBB서를 검증으로 드날리 시총 4조

에이비엘바이오의 BBB(혈뇌장벽) 투과 플랫폼 Grabody-B가 적용된 최초의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의 임상 1상이 순항 중이다. 사노피는 이미 내부적으로 뇌투과율과 안정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추가적인 플랫폼 사용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반기 임상 1상 종료 및 2025년 임상 2상 진입을 통해 검증이 완료된다면 그 가치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드날리 테라퓨틱스 파이프라인 현황

DRUG CANDIDATE*	DISEASE INDICATION	DEVELOPMENT STAGE				PARTNER
		IND-ENABLING	EARLY	MID	LATE	
Neurodegeneration and Lysosomal Storage Diseases						
Tvidenofusp alfa / DNL310 (ETV-IDS)	MPS II (Hunter)	[Progress bar: Ind-Enabling to Mid]				
DNL343 (SP28 activator)	ALS	[Progress bar: Ind-Enabling to Late]				
BBB122 / DNL151 (LRRK2 inhibitor)	Parkinson's disease	[Progress bar: Ind-Enabling to Late]				Biogen
SAR443820 / DNL788 (RIPK1 inhibitor)	Multiple sclerosis	[Progress bar: Ind-Enabling to Mid]				sanofi
TAK-594 / DNL593 (PTV-PGRN)	FTD-GRN	[Progress bar: Ind-Enabling to Early]				Takeda
DNL126 (ETV-SGSH)	MPS IIIA (Sanfilippo)	[Progress bar: Ind-Enabling to Early]				
DNL622 (ETV-EDJ4)	MPS I (Hurler)	[Progress bar: Ind-Enabling]				
ATV-Abeta	Alzheimer's disease	[Progress bar: Ind-Enabling]				Biogen
OTV-MAPT	Alzheimer's disease	[Progress bar: Ind-Enabling]				
OTV-SNCA	Parkinson's disease	[Progress bar: Ind-Enabling]				
Peripheral Inflammatory Disease						
SAR443122 / DNL758 (RIPK1 inhibitor)	Ulcerative colitis	[Progress bar: Ind-Enabling to Mid]				sanofi

■ Transport Vehicle Programs
 ■ Small Molecule Programs
 ■ 50/50 US Commercial
 ■ Royalty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현재 드날리 테라퓨틱스(Denali therapeutics)가 전세계 유일한 BBB서를 플랫폼 경쟁사이자 피어그룹의 가치를 따져보며 된다. 최근 4월 로슈가 드날리의 BBB서들을 이용한 아밀로이드-베타 타겟 알츠하이머 치료제 트론티네맙 임상 1/2상 결과를 공개했다. 바이오젠 레카네맙, 릴리 도나네맙 대비 뇌부종, 뇌출혈 부작용 발생 비율이 약 4~5배 적었고,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완전한 제거가 4개월만에 확인되며 기존 12개월까지 걸리던 기간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다.

드날리는 최근 다케다와 개발 중인 DNL919의 임상 1상 실패 및 사노피와 DNL747 임상 2상 실패 발표 후 주가가 지속 하락하였으나, 지난 4월 28일부터 로슈의 임상 결과가 발표된 후 최근 6월 28일까지 주가가 최대 +55.2% 상승했다. 드날리는 최근 시가총액 약 4조원까지 올랐다. 에이비엘바이오의 BBB서를 가치가 하반기 검증될 경우 유사 수준까지 성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5년 드날리 주가 추이 및 트리거 정리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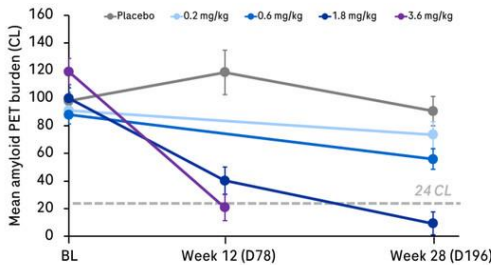
만약 에이비엘바이오와 사노피가 개발하고 있는 ABL301의 BBB셔틀 플랫폼 검증이 연내 확인되고, 사노피가 내년 임상 2상 진입으로 파이프라인의 개발 가능성이 확고함이 확인된다면 Grabody-B의 플랫폼 가치는 피어그룹 드날리 만큼의 가치도 불가능하지 않다. 드날리가 바이오젠과 21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총액이 15조원까지 상승했던 것을 보았을 때, 현재 사노피의 추가 기술이전 또는 다른 빅파마와 추가 기술이전을 통해 BBB셔틀의 가치가 더욱 입증된다면 Grabody-B 플랫폼 가치만으로도 드날리 과거 시총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로슈 트론티네맵 임상 1/2상에서 강력한 아밀로이드플라크 감소 효과 발표

Majority of participants at 3.6 mg/kg amyloid negative at 12 weeks



5 out of 8 participants below the amyloid positivity threshold at interim analysis¹



Visit	Mean amyloid value in CL at visit (% amyloid negative (<24.1 CL))				
	Pbo	0.2 mg/kg	0.6 mg/kg	1.8 mg/kg	3.6 mg/kg
BL	98 CL (0%)	91 CL (0%)	88 CL (0%)	100 CL (0%)	119 CL (0%)
Week 12	119 CL (0%)	-	-	40 CL (36%)	21 CL (63%)*
Week 28	91 CL (0%)	74 CL (0%)	56 CL (10%)	9 CL (75%)	-

Treatment	BL	Week 12 (D78)	Week 28 (D196)
Placebo	n = 12	n = 5	n = 9
0.2 mg/kg	n = 11	-	n = 10
0.6 mg/kg	n = 11	-	n = 10
1.8 mg/kg	n = 13	n = 11	n = 8
3.6 mg/kg	n = 12	n = 8	-

* 5/8 (63% of participants) <24.1 CL,
4/8 (50%) <11 CL at 3.6 mg/kg after 12 wee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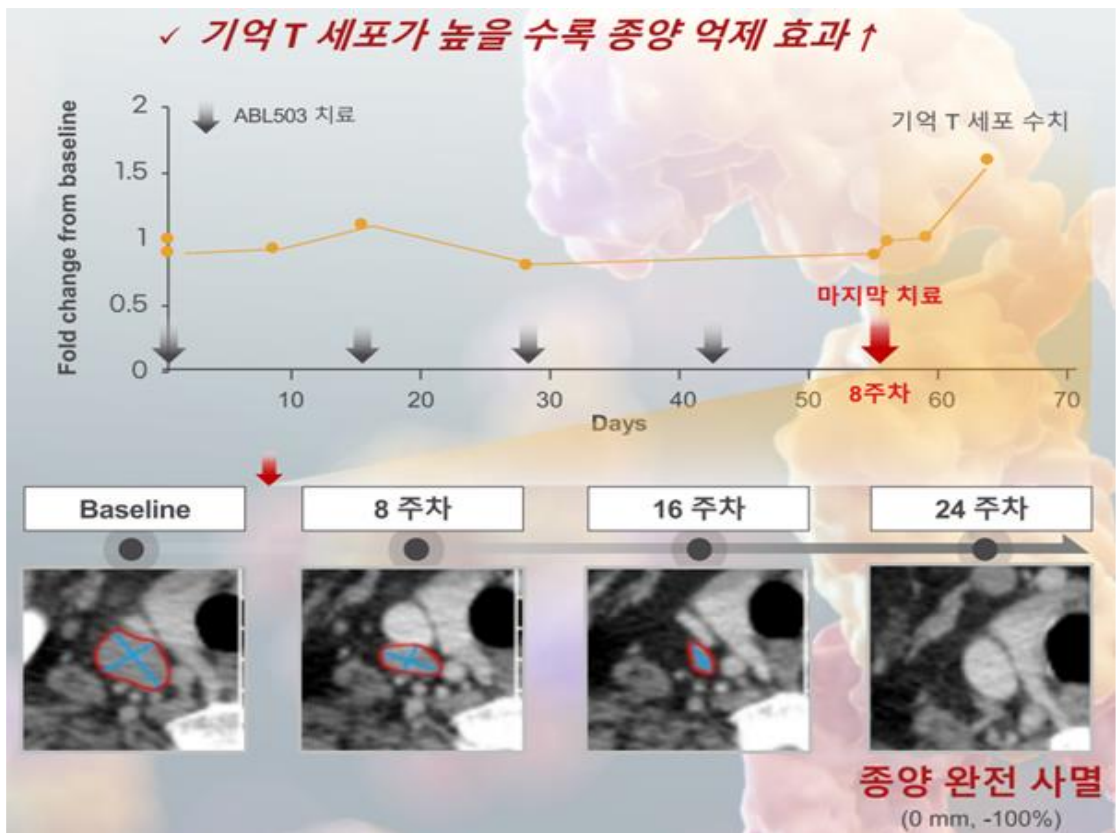
¹ Snapshot date: 22/October 2023. *Mean values ±SE (standard error) of available PET results at the different visit time points are plotted. CL, Centiloid units. Florbetapir or florbetaben PET tracers were used (P results for 30VR method, whole cerebellum reference, harmonized with centiloid).

자료: 로슈, 신한투자증권

남은 것은 빅파마 통한 항암제 검증

에이비엘바이오가 이중항체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대해 드디어 연내 빅파마 기술 이전에 대한 가시성을 밝혔다. 텃밭 계약까지 진행되었으며 복수의 적응증까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I-MAB과 공동연구 중인 ABL503 (4-IBB/PD-L1) 이중항체에 대한 기술이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ABL111은 BMS로부터 I-MAB과 병용 약물 지원 및 화학요법 3제 병용 위암 1차 치료제 위한 임상 1상이 진행 중인데 2023년 I-MAB이 ABL503 또한 빅파마가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가능성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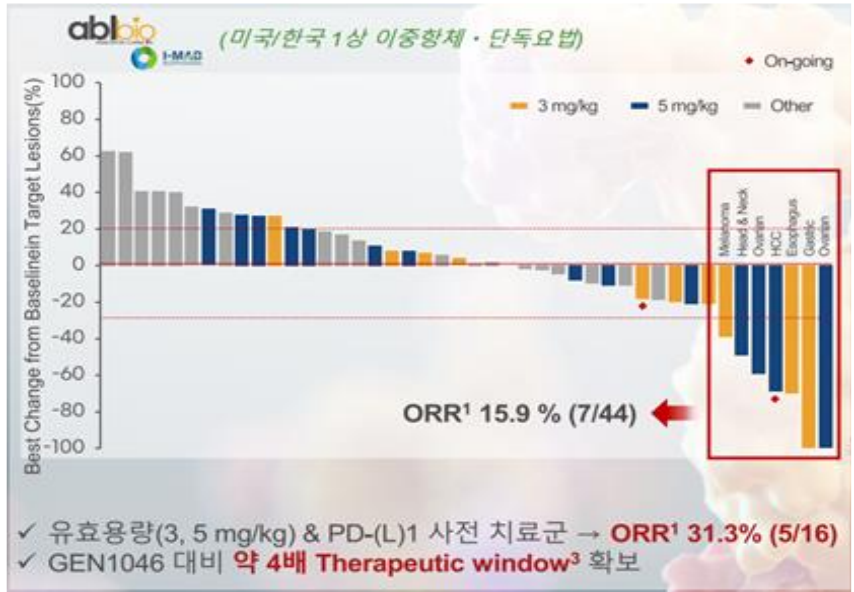
ABL503 투약 후 난소암 완전관해 결과 확인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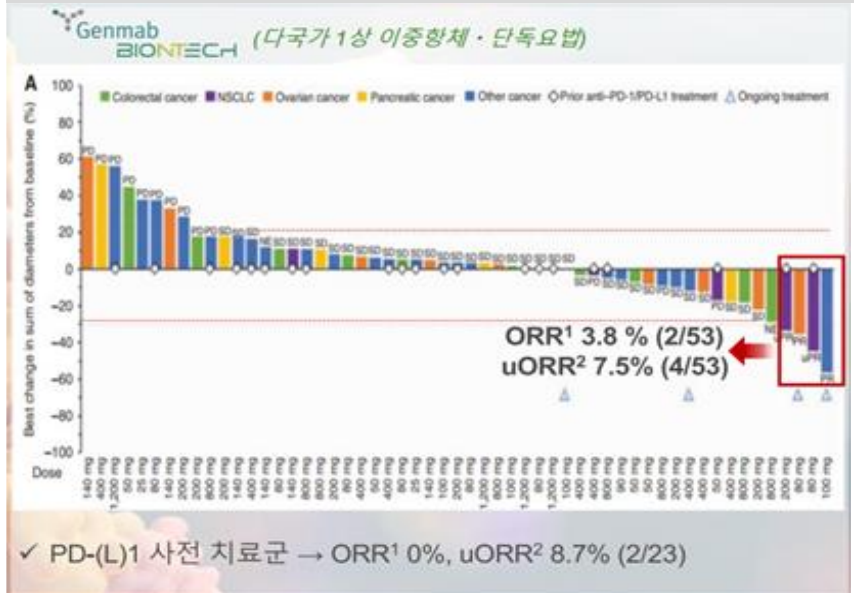
ABL503은 지난 ASCO 학회에서 진행성 및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PD-(L)1 재발/불응성 환자들로부터 강력한 종양 감소 효과를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을 토대로 임상 2상 진입 용량까지 결정한 상태다. 또한 단독과 화학요법 등의 병용 요법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

ABL503 기준 대비 종양크기 변화 (단독요법)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젠맵 GEN1046 기준 대비 종양크기 변화 (단독요법)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중요한 것은 경쟁사 대비 유효성과 부작용의 우위성인데 현재 유효용량에서 난소암 대상 7번 이상의 재발/불응 환자를 대상으로 완전관해(CR)를 확인했다. 또한 8주차가 지난 후에도 기억T세포가 지속 증가하면서 종양 억제 효과가 상승하는 것까지 확인된 상태다. 객관적반응률(ORR)은 약 40% 수준으로 쥘맵(Genmab)이 개발 중인 GEN1046 대비 ORR 또한 단독요법 기준 12.5% 대비 높은 유효성을 확인한 상태다.

ABL503 글로벌 개발 경쟁 현황

개발회사	abl bio	Genmab BIOECH	INMEX	plieris	Merus	신한	F-star	AMO	Hanmi			
파이프라인	ABL503 (Ragistomig)	Gen1046 (Acasunlimab)	INBRX-105	PRS-344	MCLA-145	QLF31907	FS222	ATG-101	BH3120			
임상	미국/한국 1상 (단독)	미국 1상 (단독)	다국가 2상 (병용)	미국 2상 (병용)	다국가 1/2상 (병용)	다국가 1상 (병용)	중국 1상 (단독)	다국가 1상 (단독)	다국가 1상 (단독)	미국/한국 1상(단독)		
적용증	고형암	고형암	NSCLC ¹	NSCLC ¹	NSCLC ¹	NSCLC ¹ 외 2종	SCLC ² , EC ³	폐암 외 2종	고형암, 림프종	고형암	고형암, B-cell NHL ⁴	고형암
RP2D*	5 mg/kg, Q2W * 후속 임상 후여주기 늘려 더욱 우수한 안전성 확보	100 mg, Q3W 100 mg, Q3W	100 mg, Q3W + 키트루다	100 mg, Q3W + 키트루다	100 mg, Q3W + 키트루다	0.3-0.6 mg/kg, Q2W + 키트루다	40 mg (=0.5 mg/kg), Q3W + 키트루다	10mg/kg, Q3W 20mg/kg, Q2W + 키트루다	0.30mg-4.5mg/kg, Q4W	1.1, 1.5mg/kg		
환자군	PD-(L)1 재발/불응 환자 56.6%	PD-(L)1 재발/불응 환자 37.7%	PD-(L)1 재발/불응 환자	PD-(L)1 재발/불응 환자	PD-(L)1 재발/불응 환자	PD-(L)1 재발/불응 환자	PD-(L)1 재발/불응 환자	PD-(L)1 재발/불응 환자 57.9%	PD-(L)1 재발/불응 환자 41%			
효능	ORR* 40.0% (최적용량, PD-(L)1 재발/불응 대상)	ORR* 0% (sORR* 8.7%)	ORR* 12.5% (sORR* 31.3%)	ORR* 18.2% (sORR* 20.8%)	ORR* 16.7% (sORR* 28.6%)		ORR* 11%	ORR* 7.9% (sORR* 15.8%)	ORR* 17.0%			
안전성**	AST*/ALT* 32.1% (≥Gr 3: 28.3%)	AST*/ALT* Transaminase 증가 26.2% (≥Gr 3: 9.8%)	Transaminase 증가 13.6% (≥Gr 3: 9.1%)	Transaminase 증가 28.6% (≥Gr 3: 16.7%)	Transaminase 증가 18.4% (≥Gr 3: 12.2%)		AST*/ALT* (any 21%) (≥Gr 3: 11%)	AST* 34.2% ALT* 31.6%	AST* 32% ALT* 31% (≥Gr 3: 28%)			
후속 임상	PD-(L)1 재발/불응 환자 대상		GEN1046 (100 mg) + 키트루다 (400 mg), Q3W PD-L1 양성 NSCLC 환자 대상		임상 중단	임상 중단 (주정)	임상 중단 (주정)	PD-(L)1 재발/불응 환자 대상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Therapeutic window 또한 5mg/kg 2주간격 투약에서 쥘맵 500mg 6주 간격 투약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AST/ALT 간독성이 쥘맵의 고형암 미국 임상 1상 대비 높게 나왔으나 (32.1% vs. 26.2%) ABL503은 첫 투약 시에만 간 수치가 올라가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할 경우 부작용 조절이 가능한 것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두번째 투약부터는 독성이 발견되지 않아 부작용 문제도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ABL503의 기술이전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ABL001 2026년 상업화 시 재무적 안정화

에이비엘바이오가 컴패스(Compass therapeutics)에 기술이전했던 담도암 치료제 ABL001이 담도암에서 FDA로부터 FAST TRACK을 지정받아 2025년 하반기 임상 2/3상 결과 발표 및 허가신청을 앞두고 있다. 2026년 상업화 예정으로 담도암 2차 치료제로 진입 목표다.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와 쥘시스 3제 병용요법과 유효성 비교에 있어 동종계열 약물 내 Best-in-class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스트라제네카 PD-L1 면역항암제 임핀지와 쥘시스 3제 병용요법이 현재 FDA 승인된 1차 치료제로 ABL001이 현재까지 공개된 결과를 보았을 때 ORR, PFS, DOR 모든 측면에서 우위를 확인해 향후 1차 치료제 진입도 가능하다. 2025년 담도암 전체생존률 중앙값(mOS)에서 기존 FDA 1차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 쥘시스 + 임핀지 3제 병용요법보다 높은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엄민용, 정희령)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네오셈 (253590)

CXL 관련주 이상의 존재감

2024년 7월 4일

✓ 투자판단	Not Rated	✓ 목표주가	-
✓ 상승여력	-	✓ 현재주가 (7월 3일)	14,850 원

[반도체/장비]

남궁현 선임연구원
✉ hyon@shinhan.com

신한생각 수확의 시기가 도래하는 중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HBM, CXL과 같은 차세대 메모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2024년 관련 장비를 신규 공급하며 차세대 메모리 제품군 가시화에 주목. 이외에도 서버용 메모리 고용량화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라 내년부터 중장기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실적 Upside와 함께 주가 또한 긍정적인 흐름 기대

2025년 영업이익 292억원(+183% YoY)으로 성장 본격화

Package단에서 Burn-In과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업체. Module Tester(SSD, Server DIMM 등)와 Component Tester(DRAM, NAND, HBM 등)를 주력으로 생산중이며 2023년 기준 매출 비중은 각각 95%, 5% 차지. 글로벌 메모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보유

1) SSD 고용량화 추세에 따라 Test Time이 길어지며 SSD Module Tester 요구 대수 증가, 2) 차세대 메모리용 Module Tester 공급, 3) 반도체 공정의 Tact Time을 단축시킬 수 있는 Component Tester 공급, 4) Automation 장비 매출 본격화에 따른 수혜 기대. 2025년 실적은 매출액 1,498억원(+35% YoY), 영업이익 292억원(+183% YoY)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10%p YoY)될 전망. 신규 장비 매출 비중은 30% 수준까지 확대 예상

Valuation &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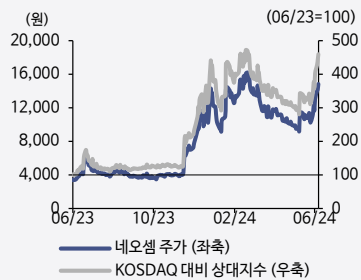
2024년은 실적 성장 보다는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확인했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Upside가 반영되며 Valuation 안정화 전망. 다만 현재 CXL 관심도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

Revision	
실적추정치	신규
Valuation	NR

시가총액	651.5십억원
발행주식수(유동비율)	43.9백만주(44.5%)
52주 최고가/최저가	16,180 원/3,500 원
일평균 거래액 (60일)	24,619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0.0%
주요주주 (%)	
염동현 외 1인	52.4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55.3	7.5	317.1	59.7
상대	56.9	13.2	343.7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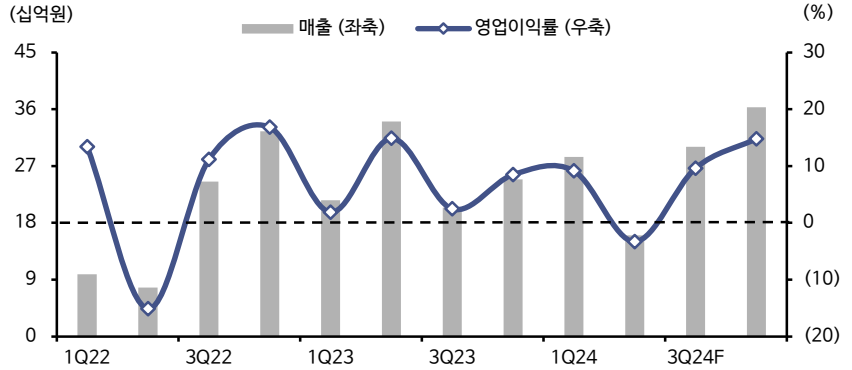
주가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2	74.7	8.4	10.0	12.9	17.7	2.1	11.6	1.0
2023	100.9	8.1	8.3	37.9	11.1	3.9	30.9	0.4
2024F	110.8	10.3	9.1	68.3	10.0	6.6	45.9	0.2
2025F	149.8	29.2	24.7	25.2	23.3	5.3	16.8	0.4
2026F	202.5	48.8	39.8	15.6	29.5	4.1	10.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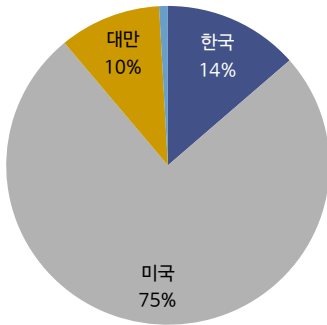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네오셈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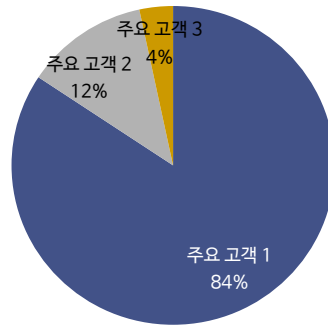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2023년 지역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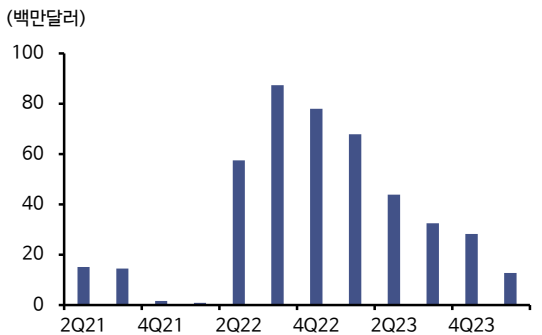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2023년 주요 고객 매출 비중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수주잔고 추이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주요 연구 개발 실적

연도	연구과제
2018년	PCIe Gen 4 Tester 개발 성공 - Test 속도 향상 및 검사 장비 소형화
2020년	PCIe Gen 4 Tester 개발성공 - CPU 기반 Tester 개발완료 및 양산 개시
2021년	PCIe Gen 5 Tester - SSD 제조사에 데모 장비 납품 완료 및 데모 진행
2022년	CXL 1.1 메모리 검사 장비 개발 PCIe Gen 5 SSD Tester 개발 진행
2023년	CXL 2.0 메모리 검사장비 개발 Automation Tester 개발 진행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CXL 관련 이벤트 요약

기간	이벤트
03/19	인텔을 주도로 한 CXL 컨소시엄 출범
06/19	CXL 1.1 표준 제정
11/20	CXL 2.0 표준 제정
05/21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CXL 기반 DRAM 기술 개발
05/22	중국 Fabless 업체 Montage Technology, 세계 최초로 CXL 메모리 컨트롤러 상용화
08/22	SK하이닉스, DDR5 DRAM 기반의 CXL 메모리 개발
05/23	CXL 3.0 표준 제정
05/23	삼성전자, CXL 2.0을 지원하는 DRAM 출시
08/23	마이크론, CXL 2.0을 지원하는 DRAM 출시
06/24	인텔, CXL 2.0을 지원하는 제온6(시에라포레스트) 프로세서 출시 * 상용 제품 중 처음으로 CXL 2.0 지원

자료: 회사 자료, 언론 종합, 신한투자증권

메모리 3사 CXL DRAM 라인업

제품 사진			
회사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출시 시기	23년 5월	22년 8월	23년 8월
용량	128Gb	96Gb	128/256Gb
대역폭	35Gb/s	35Gb/s	36Gb/s
CXL 표준	CXL 2.0	CXL 2.0	CXL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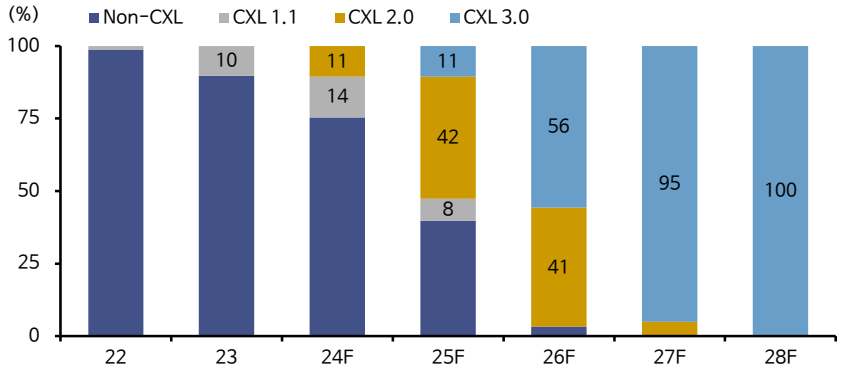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언론 종합, 신한투자증권

인텔과 AMD의 CXL 지원 프로세서 라인업(예상)

제품명	인텔 Xeon 시리즈				AMD EPYC 시리즈			
	Sappahire Rapids	Emeralds Rapids	Granite Rapids	Diamond Rapids	Geona	Bergamo	Turin	Venice
세대	4th Gen Xeon	5th Gen Xeon	6th Gen Xeon	7th Gen Xeon	Zen 4	Zen 4C	Zen 5	Zen 6
출시 시기	23년 1월	23년 12월	24년 6월	25년 예정	22년 11월	23년 6월	24년 예정	25년 예정
메모리	8x D5-4800	8x D5-5600	12x D5-6400	DDR6	8x D5-4800	8x D5-4800	8x D5-6000	DDR6
PCIe	PCIe 5/4	PCIe 5.0	PCIe 5.0	PCIe 6.0	PCIe 5.0	PCIe 5.0	PCIe 5.0	PCIe 5.0
CXL	CXL 1.1	CXL 1.1	CXL 2.0	CXL 3.0	CXL 1.1	CXL 1.1	CXL 2.0	CXL 3.0

자료: ETRI, Tom's Hardware, 신한투자증권

서버용 CPU용 CXL 세대별 비중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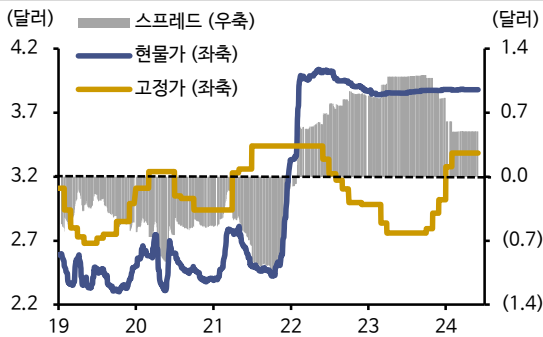
자료: Statista, 신한투자증권

세대별 PCIe 비교

Specifications	Lanes				
	x1	x2	x4	x8	x16
2.5 GT/s (PCIe 1.x +)	500 MB/S	1 GB/S	2 GB/S	4 GB/S	8 GB/S
5.0 GT/s (PCIe 2.x +)	1 GB/S	2 GB/S	4 GB/S	8 GB/S	16 GB/S
8.0 GT/s (PCIe 3.x +)	2 GB/S	4 GB/S	8 GB/S	16 GB/S	32 GB/S
16.0 GT/s (PCIe 4.x +)	4 GB/S	8 GB/S	16 GB/S	32 GB/S	64 GB/S
32.0 GT/s (PCIe 5.x +)	8 GB/S	16 GB/S	32 GB/S	64 GB/S	128 GB/S
64.0 GT/s (PCIe 6.x +)	16 GB/S	32 GB/S	64 GB/S	128 GB/S	256 GB/S
128.0 GT/s (PCIe 7.x +)	32 GB/S	64 GB/S	128 GB/S	256 GB/S	512 G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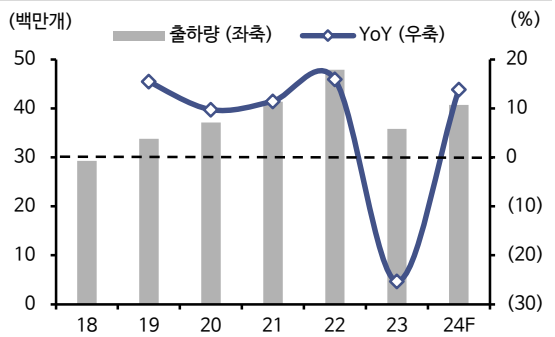
자료: Canaitech, 신한투자증권

NAND 가격 추이 및 전망



자료: Trendforce, 신한투자증권

연간 eSSD 출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Trendforce,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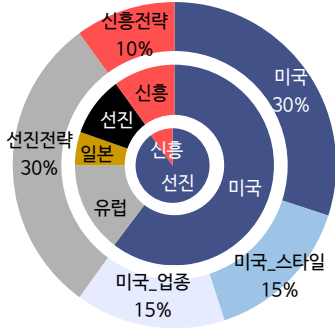
📌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남궁현)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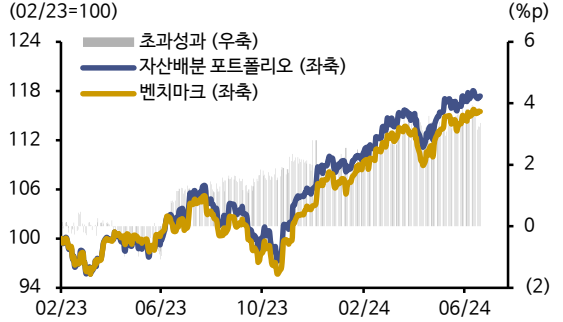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① 자산배분형

포트폴리오: 글로벌 자산배분 주식 부문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성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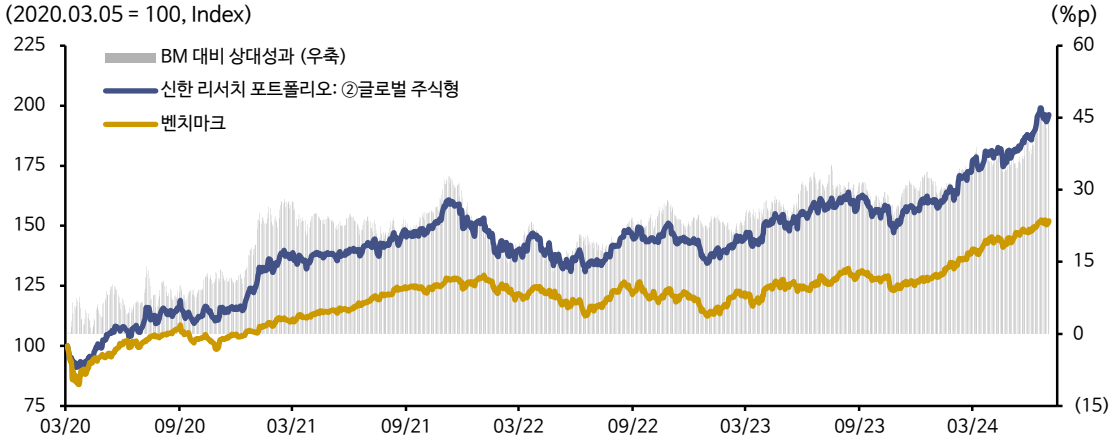
종목명	비중			티커	수익률 (%)		
	조정비	SAA	TAA		1M	3M	편입후
주식	65.0	60.0	5.0		0.3	1.2	16.4
선진	59.0	54.0	5.0				
미국	39.5	36.0	3.5				
S&P500 ETF	27.5	24.0	3.5	SPY.US	3.2	4.4	32.3
스타일배분							
성장 ETF	3.0	0.0	3.0	VUG.US	6.1	9.3	54.3
업종 배분							
반도체 ETF	4.0	0.0	4.0	SOXX.US	2.3	8.2	70.5
인프라 ETF	3.0	0.0	3.0	PAVE.US	(5.5)	(7.1)	(0.1)
통신 ETF	2.0	0.0	2.0	XLCUS	4.2	5.7	0.0
기타 선진	19.5	18.0	1.5				
유럽 ETF	13.9	10.9	3.0	FEZ.US	(5.8)	(5.1)	15.5
일본 ETF	5.6	3.6	2.0	DXJ.US	1.9	2.6	32.9
기타선진	0.0	3.5	(3.5)				
신흥	6.0	6.0	0.0				
중국	2.4	1.9	0.5				
중국 A50	2.4	1.9	0.5	2823.HK	(4.3)	0.0	(1.7)
기타 신흥국	3.6	4.1	(0.5)				
한국 ETF	1.2	0.7	0.5	EWY.US	2.6	(2.2)	3.7
인도 ETF	1.1	1.1	0.0	INDA.US	3.2	9.2	26.2
신흥국 ETF	1.3	2.3	(1.0)	EEM.US	(1.2)	3.9	14.0

종목명	비중			티커	수익률 (%)		
	조정비	SAA	TAA		1M	3M	편입후
채권	27.5	30.0	(2.5)		0.2	(0.5)	(0.3)
미국 국채	5.5	6.0	(0.5)				
국채 단기	0.6	0.9	(0.4)	SCHO.US	0.3	(0.3)	(0.4)
국채 중기	3.0	3.6	(0.6)	VGIT.US	1.0	(0.5)	(1.4)
국채 장기	1.4	1.1	0.3	VGLT.US	2.1	(1.1)	(9.5)
물가채	0.6	0.5	0.1	TIP.US	0.6	(0.2)	(1.1)
미국 크레딧	5.5	6.0	(0.5)				
MBS	2.5	3.0	(0.5)	MBB.US	1.4	(0.4)	(2.8)
IG 단기	0.1	0.2	(0.1)	VCSH.US	0.4	(0.2)	1.7
IG 중기	1.4	1.4	(0.1)	VCIT.US	0.8	(0.4)	0.4
IG 장기	0.7	0.7	(0.0)	VCLT.US	0.9	(1.8)	(4.1)
HY 단기	0.3	0.2	0.1	SJNK.US	0.0	(1.0)	0.3
HY 중기	0.6	0.5	0.1	HYG.US	0.3	(0.7)	1.7
비미국	16.5	18.0	(1.5)				
전체	7.4	7.5	(0.1)	IAGG.US	0.6	0.0	3.0
선진	5.8	6.0	(0.2)	BNDX.US	0.3	(1.0)	0.6
신흥	3.3	4.5	(1.2)	EMLC.US	(2.9)	(3.4)	(4.9)
대체	7.5	10.0	(2.5)		0.5	0.9	2.6
상품	3.2	4.0	(0.8)				
금	0.4	0.5	(0.1)	GLD.US	(0.4)	5.9	23.3
원유	1.2	1.5	(0.3)	USO.US	6.1	3.1	16.4
산업금속	1.2	1.5	(0.3)	DBB.US	(5.4)	12.0	(3.5)
농산물	0.4	0.5	(0.1)	DBA.US	(4.2)	(4.2)	17.5
리츠	1.8	2.5	(0.7)				
물류/산업	0.7	1.0	(0.3)	INDS.US	1.6	(4.9)	(10.0)
미국 중소형	0.4	0.5	(0.1)	KBWY.US	0.2	(2.1)	(19.4)
한국 리츠	0.7	1.0	(0.3)	329200.KS	(0.7)	(0.7)	(0.1)
인프라	2.5	3.5	(1.0)				
미드스트림	1.8	2.3	(0.5)	AML.P.US	4.9	1.3	17.5
디지털	0.7	1.2	(0.5)	SRVR.US	(0.6)	(5.1)	(13.9)

포트폴리오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② 글로벌 주식형

포트폴리오 성과



종목/테마		1D	편입 후	종목/테마		1D	편입 후
미국/선진				중국/신흥			
엔비디아	NVDA.US	(1.3)	428.2	국유기업배당 ETF	510880.SH	0.1	12.6
브로드컴	AVGO.US	1.0	108.5	베이팡화창	002371.SZ	(2.1)	9.7
이턴 코퍼레이션	ETN.US	0.3	41.1	잉웨이커	002837.SZ	(3.6)	(20.7)
일라이 릴리	LLY.US	(0.8)	47.7	차이나 인터넷 ETF	KWEB.US	0.8	(9.5)
메타	META.US	1.0	37.6	폭스콘산업인터넷	601138.SH	(2.3)	13.3
아마존	AMZN.US	1.4	28.7	국전남서과기	600406.SS	(1.7)	(1.5)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0.6	19.1				
TSMC	TSM.US	2.0	14.2	ETF			
알파벳	GOOGL.US	1.2	23.5	나스닥100	QQQ.US	1.0	33.6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CEG.US	0.5	(6.5)	S&P500	SPY.US	0.7	21.9
퍼스트솔라	FSLR.US	(2.7)	(14.6)	동광 ETF	COPX.US	0.4	(3.3)
GE 버노바	GEV.US	1.4	4.3	단기채 (USD)	SHV.US	0.0	(0.4)
팔란티어	PLTR.US	(0.2)	24.7	단기채 (CNY)	511360.SS	0.0	8.5
코스트코	COST.US	1.6	1.9				
테슬라	TSLA.US	10.2	15.9				
암젠	AMGN.US	(0.1)	(0.9)				

편입: 없음
 편출: 없음

포트폴리오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월간 Top Picks



아마존 (AMZN.US) | #프라임데이 #클라우드 #중국 이커머스 대응 전략 #엔트로픽

편입일 2024-01-11 · 최근 중국 이커머스와 경쟁하기 위한 전략 발표하고, 알렉사에 AI를 탑재해 구독료를 고려 중이라 언급
 누적수익률 28.7% · 경쟁업체와 달리 기능별로 맞춤화된 개별 AI 전략 채택, 향후 수백억달러 규모의 매출이 AI에서 창출될 것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 #코파일럿 수익화 #AI 탑재 PC 출시 #Azure 클라우드 고성장

편입일 2024-01-11 · 데이터 분석, 개발도구 등 AI 인접 서비스가 Azure와 함께 사용량 증가. 1위 업체 AWS와 점유율 격차 축소
 누적수익률 19.1% · 5월 말 AI가 탑재된 Copilot Plus PC를 출시해 상업용 PC 교체 및 마이그레이션 수요 가속 기대감 견인



엔비디아 (NVDA.US) | #주도주 #AI 칩은 여전히 공급 부족 #빅테크 투자 확대

편입일 2023-02-24 ·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상회. 성장 가시성 가장 뚜렷해 이익추정치 추가 상향 기대감 유호
 누적수익률 428.2% · 대만 컴퓨텍스 2024에서 차세대 제품 및 AI 솔루션 대거 발표. AI 시장 주도권 선점 장기화 전망



브로드컴 (AVGO.US) | #AI 서버 수혜주 #고속 네트워크 수요 증가 #DPS 우상향 가치주

편입일 2023-05-30 · AI 어플리케이션 확산 속 800G 네트워크 솔루션(스위치, 가속기 판매) 업그레이드 수요 지속될 전망
 누적수익률 108.5% · AI 추론 수요 확대에 필요한 커스텀 IC(ASIC) 설계 수요 증가, 구글/메타 등 주요 고객사 확보 긍정적



테슬라 (TSLA.US) | #모델 2, FSD 기대감 주가에 반영 시작 #8월 로보택시 행사 전까지 보유

편입일 2024-06-27 · '24년 실적 및 전기차 판매량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아 주가 하락 후 반등. 모델 2, FSD 기대감 반영 시작
 누적수익률 15.9% ·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모델 2의 자세한 출시 일정 공유 예상. 기대감 반영되는 동안 추가 상승



버티브 (VRT.US) | #데이터센터 매출 비중 75% #Nvidia와 냉각 솔루션 개발

편입일 2024-03-01 · AI로 인한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Q1), 서버당 전력 사용량 증가로 관련 기자재 모두 스펙 향상 필요(P1)
 누적수익률 28.7% · 2Q24 OPM+16.9%(+4.1%p) 제시. 중장기 OPM+20% 목표. 매 분기 시장 기대치 상회하는 호실적 기록 전망



일라이 릴리 (LLY.US) |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 가시화 #비만약 수면 무호흡증 승인 기대

편입일 2024-01-04 · FDA 자문위 알츠하이머 치료제 만장일치 승인 권고. 올해말 승인 가시화 및 2025년부터 매출 창출 전망
 누적수익률 47.7% · 비만약 수면 무호흡증 적응증 승인 기대. 승인시 메디케어 적용 및 약가 인하 가능성 상승



베이팡화창 (002371.SZ) | #반도체 국산화 #정부 반도체 3기 펀드 #미국 반도체 규제

편입일 2024-03-14 · 중국 대표 반도체 장비 업체. 전공정 열처리 장비 1위, 증착/식각 장비에서도 로컬 업체 중 최상위
 누적수익률 9.7% · 정부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 3기 조성 + 1Q24 전방 고객사 합산 CapEx +90% 증가에 따른 수혜



폭스콘산업인터넷 (601138.SH) | #글로벌 AI 서버 대장주 #중국 내 유일 엔비디아 직접 수혜주

편입일 2024-05-24 · 글로벌 1위 서버 ODM 업체. 중국 내 유일한 엔비디아 서버 제조 협력사이자 직접적 수혜주.
 누적수익률 13.3% · 7월 3중전회에서 정부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 내용 강조 예상. AI 필두로 기술주 반등 기대



히타치 (6501.JP) | #AI 투자 #전력망 투자 #DX #GX

편입일 2024-06-04 · 글로벌 AI 투자 및 전력망 투자 증대로 관련 수주잔고 증가. 일본 디지털전환 & 녹색전환 정책 추진
 누적수익률 13.1% · FY23년 비핵심사업 매각으로 핵심 3개 사업부로 사업 재편하면서 FY24년 수익성 개선 전망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리서치센터 해외주식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가와 ETF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포트폴리오이며 경기투자조건과 상이하거나, 투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 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포트폴리오 변경은 주가 수익률 변화의 변동 상황 발생 시 진행되고 있으며 비중 및 편·출입은 상승과 하락에 따른 조정으로 투자 권유나 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입 이후 15% 이상 하락할 경우 Stop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BM)는 MSCI AC World Index(70%) + Bloomberg Barclays World Bond Index(30%)입니다.
- 상기 중목 정보는 FInGuide, Bloomberg 및 WIND(중국, 홍콩)의 정보와 컨센서스 및 각 ETF 운용사 제공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 국가(각국 통화 기준)는 각 시장의 직전거래일 기준 증가입니다. (단, 미국 및 유럽 주식, 해외 상장 ETF의 주가는 전전거래일 증가 기준)
- 수익률은 편입일의 증가 대비 직전거래일 증가를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 수치입니다. (단, 미국 및 유럽 주식, 해외 상장 ETF는 전전거래일 증가 기준)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상기 회사(예를 들어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AVI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초자산으로 RSI 발행된 상품입니다. 기타의 중목은 회사(외)의 해산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회사 정책(예를 들어 주가변경)가능합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③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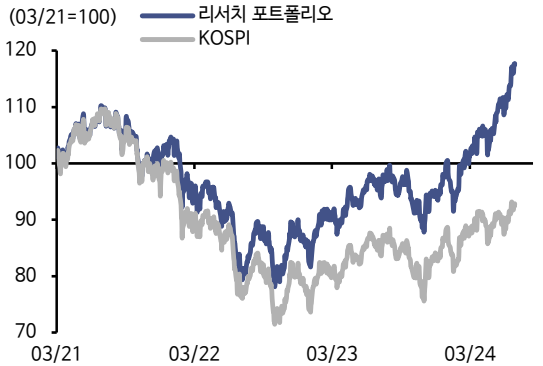
7월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섹터	업종	코드	종목명	업종			종목 비중	전주 차이
				비중	제안 비중	차이 (B-A)		
에너지				1.7	1.3	(0.4)		
	에너지	A010950	S-Oil	1.7	1.3	(0.4)	1.3	(0.0)
소재				7.5	6.7	(0.9)		
	화학	A011780	금호석유	4.5	4.0	(0.5)	1.3	(0.1)
		A011170	롯데케미칼				0.9	신규
		A298020	효성티앤씨				0.9	(0.0)
		A298050	효성첨단소재				0.9	(0.0)
	비철,목재등	A010130	고려아연	1.1	1.2	0.1	0.6	0.2
		A006260	LS				0.6	0.1
	철강	A005490	POSCO홀딩스	2.0	1.5	(0.5)	1.0	(0.1)
		A001430	세아베스틸지주				0.2	(0.0)
		A004020	현대제철				0.2	(0.0)
산업재				14.4	14.8	0.5		
	건설,건축관련	A294870	HDC현대산업개	1.5	1.3	(0.2)	1.3	0.1
	기계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3.0	3.4	0.4	3.4	(0.0)
	조선	A329180	HD현대중공업	2.5	2.9	0.4	2.9	0.2
	상사,자본재	A047810	한국항공우주	4.9	4.7	(0.2)	1.2	(0.0)
		A028260	삼성물산				1.7	(0.0)
		A034730	SK				1.8	(0.1)
	운송	A086280	현대글로벌비스	2.4	2.5	0.1	1.2	(1.1)
		A011200	HMM				1.2	신규
경기관련소비재				11.7	11.6	(0.1)		
	자동차	A005380	현대차	7.7	8.2	0.5	4.9	(0.1)
		A000270	기아				2.4	(0.7)
		A204320	HL만도				0.9	신규
	화장품,의류,완구	A090430	아모레퍼시픽	2.3	2.6	0.3	0.5	(0.1)
		A051900	LG생활건강				0.3	(0.3)
		A192820	코스맥스				1.0	0.2
		A114840	아이패밀리에스				0.8	0.1
	호텔,레저서비스	A034230	파라다이스	0.3	0.0	(0.3)	0.0	0.0
	미디어,교육	A035760	CJ ENM	0.7	0.4	(0.3)	0.2	0.0
		A352820	하이브				0.2	0.0
	소매(유통)	A004170	신세계	0.6	0.3	(0.3)	0.3	0.1
필수소비재				2.3	2.6	0.3		
	필수소비재	A003230	삼양식품	2.3	2.6	0.3	1.4	(0.1)
		A097950	CJ제일제당				1.3	(0.0)

섹터	업종	코드	종목명	업종			종목 비중	전주 차이
				비중	제안 비중	차이 (B-A)		
의료				6.0	6.2	0.2		
	건강관리	A196170	알테오젠	6.0	6.2	0.2	2.0	0.0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				1.8	(0.0)
		A068270	셀트리온				1.2	(0.0)
		A000100	유한양행				1.2	0.1
금융				10.1	10.0	(0.1)		
	은행	A055550	신한지주	5.8	5.8	(0.0)	3.2	(0.1)
		A086790	하나금융지주				2.6	(0.1)
	증권	A005940	NH투자증권	1.9	1.7	(0.1)	1.7	0.0
	보험	A005830	DB손해보험	2.5	2.5	0.0	1.3	(0.1)
		A000810	삼성화재				1.2	(0.0)
IT				43.9	44.6	0.7		
	소프트웨어	A192080	더블유케이즈	4.5	4.6	0.1	1.2	(0.0)
		A067160	SOOP				1.7	0.1
		A263750	필터비스				1.0	(0.1)
		A194480	테브시스터즈				0.7	(0.0)
	IT하드웨어	A009150	삼성전기	1.5	1.8	0.3	0.7	0.1
		A018260	삼성에스디에스				0.5	(0.1)
		A148150	세경하이테크				0.2	0.0
		A011070	LG이노텍				0.3	신규
	반도체	A005930	삼성전자	31.4	31.9	0.5	22.9	0.6
		A000660	SK하이닉스				7.9	(0.2)
		A074600	원익QnC				0.2	(0.0)
		A042700	한미반도체				0.9	(0.1)
		A039030	이오테크닉스				0.1	0.0
	IT가전	A066570	LG전자	6.2	5.8	(0.4)	1.1	0.1
		A373220	LG에너지솔루션				2.4	0.1
		A006400	삼성SDI				2.3	(0.1)
	디스플레이	A213420	덕산네오룩스	0.3	0.6	0.2	0.6	0.1
통신서비스				1.1	1.1	(0.1)		
	통신서비스	A030200	KT	1.1	1.1	(0.1)	1.1	0.1
유틸리티				1.2	1.1	(0.1)		
	유틸리티	A015760	한국전력	1.2	1.1	(0.1)	0.5	0.2
		A036460	한국가스공사				0.5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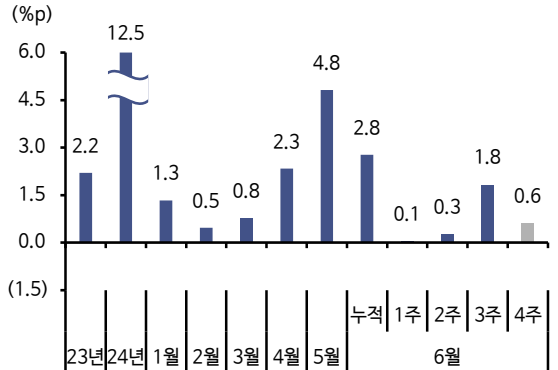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 주: 업종 분류는 FnGuide W126 기준, 6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

KOSPI와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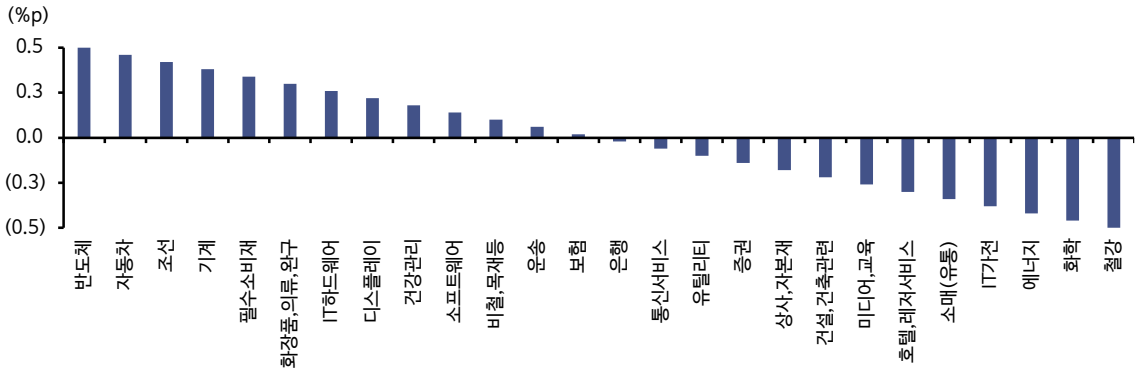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상대수익률



자료: 신한투자증권

신한 리서치 포트폴리오 KOSPI 대비 업종 비중 [반도체, 자동차, 조선↑ VS 철강, 화학, 에너지↓]



자료: 신한투자증권

- [반도체]** 상반기 AI 관련 선단 공정 위주 가동률 점진적 회복 확인, 하반기 세트 수요 회복 동반되며 상저하의 흐름 전망
 - SK하이닉스: 연간 CapEx 가이드선 상향 조정, HBM Capa 확대되며 시장 지위 견고해질 전망, NAND 흑자 전환 성공. 최근 메모리 현물가 일부 하락 기조 있으나 하반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수요 반등 전망
- [자동차]** 내수 둔화에도 선진국 중심 견조한 판매 지속, 현대차 인도 법인 IPO로 인도 비중 높은 부품사 모멘텀 수혜
 - 현대차: 인도 법인 IPO 프로세스 본격화, 확보한 현금 바탕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 2분기 수익성 전망도 긍정적
- [조선]** 공정 지연 완화, 인건비 상승폭 둔화 등에 실적 개선세 유지. 선종별 발주량 대비 공급량 부족에 신조선가 상승세
 - HD현대중공업: 공정 개선으로 상선 부문 흑자전환. 엔진사업 보유로 원활한 친환경 대응. 군함 등 방산 부문 부각

추천 종목

중소형주

티앤엘 (340570)		KDQ
주가 (원)	6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 예상, 블랙프라이데이 및 크리스마스 물량 소화 ◆ 미국내 침투율 20% 미만에 불과, 지점 확대 가능성 유효 ◆ 마이크로니들, 의료용 대마 등 신성장 모멘텀 보유
추천일	24년 6월 20일	
수익률	-4.6%	
상대수익	-1.0%p	
토비스 (051360)		KDQ
주가 (원)	2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브드 모니터, 버튼덱 등 신제품 출시 활발 ◆ 현재 카지노용 모니터 M/S 1위, 4개 주요 고객사와 모두 거래 중 ◆ 가파른 전장용 매출액 상승,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고객사 4곳 확보 완료
추천일	24년 6월 20일	
수익률	-8.0%	
상대수익	-4.4%p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337930)		KDQ
주가 (원)	6,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동기인 중국 애슬레저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 중 ◆ 3Q24 중국 정식 오프라인 매장 출점 본격화 ◆ 중국 이익기여로 영업이익의 레벨 상향 기대
추천일	24년 6월 20일	
수익률	10.1%	
상대수익	13.7%p	
대한유화 (006650)		KSP
주가 (원)	126,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구환신 등 중국 부양책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스프레드 개선세 지속 ◆ 유가 안정화, 재고 축적 수요, 공급 부담 감소 등으로 하반기 시장 회복 전망 ◆ 그럼에도 역사적 저점 수준의 PBR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상황
추천일	24년 6월 12일	
수익률	-19.7%	
상대수익	-22.6%p	
태광 (023160)		KDQ
주가 (원)	12,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수주 바닥 통과, 2Q24부터 신규수주 증가세로 전환 ◆ 미국 LNG 및 중등 정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확대 ◆ 동해 석유, 가스전 시추는 당장의 실적 기여가 없겠지만 기대감에 따른 긍정적 시각 유지
추천일	24년 6월 7일	
수익률	0.9%	
상대수익	3.3%p	

인카금융서비스 (211050)		KDQ
주가 (원)	5,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Q24 OP 184억원(+64% YoY), NP 124억원(+53% YoY), 어닝 서프라이즈 ◆ 오랜 영업 노하우 기반 빠른 설계사 수 준증이 가장 큰 장점 ◆ 설계사가 빨리 늘어나는 G가 시장 선점에 무조건 유리
추천일	24년 5월 20일	
수익률	-10.6%	
상대수익	-7.8%p	

원익QnC (074600)		KDQ
주가 (원)	35,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 실적 반등 시기 도래 → 계단식 성장 전망 ◆ 2023년에 이어 자회사 실적 개선 효과 본격화 ◆ Cycle 회복에 따른 반도체 부품 업체 수혜 기대
추천일	24년 3월 7일	
수익률	22.6%	
상대수익	27.2%p	

파라다이스 (034230)		KDQ
주가 (원)	13,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사상 최대 실적 vs. 신저가 ◆ 인스파이어 IR 개장이 리스크, 2/3 인스파이어 카지노 오픈 → 리스크는 노출된 상황 ◆ 2월 카지노 숫자도 전혀 훼손 없이 견고한 숫자를 기록해 '바텀 아웃' 기대
추천일	24년 3월 4일	
수익률	2.1%	
상대수익	7.0%p	

SOOP (067160)		KDQ
주가 (원)	12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영향 없이 성장하는 후원경제와 BTL 수요 증가 수혜 받을 콘텐츠형 광고 긍정적 전망 ◆ 트위치 TV 한국 철수와 동사의 해외진출 통해 트래픽 및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 ◆ 인플루언서 콘텐츠 영향력 커짐에 따라 광고 및 트래픽 수혜로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성 높음
추천일	24년 1월 31일	
수익률	20.6%	
상대수익	18.3%p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는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이며 장기투자 의견과 상이하거나, 투자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차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 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포트폴리오 변경은 주가 수익률 변화와 변동 상황 발생 시 진행되고 있으며 비중 및 편·출입은 상승과 하락에 따른 조정으로 투자 권유나 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편입 이후 15% 이상 하락할 경우 Stop 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 ◆ 국내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BM)는 KOSPI(100%)입니다.
- ◆ 중소형주 추천 종목은 추천일 직전거래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3조원 미만의 종목입니다.
- ◆ 주가는 직전거래일 종가 기준이며, 일부 종목 정보는 FnGuide를 참고하였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신한지주)와 계열회사 관계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NAVER,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POSCO홀딩스, 현대차, LG이노텍,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카카오, 카카오뱅크)를 기초자산으로 ELWG가 발행된 상태이며,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LG디스플레이, LG전자, NAVER, SK,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국전력,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고려이연, SK, 현대차, LG전자,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를 기초자산으로 ELS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영원무역)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선물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옵션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편출]

- ◆ 없음

주요 경제지표 발표 및 이벤트 일정

일		화		수		목		금	
7/1		7/2		7/3		7/4		7/5	
한	휴장(홍콩) 6월 수출입동향 6월 제조업 PMI 6월 제조업 PMI(확) 6월 Caixin 제조업 PMI 6월 제조업 PMI(확) 6월 ISM 제조업	한 중 유 미	6월 CPI 6월 외환보유액(7/3) 항공우주·조선 분야 금형 장비 수출 통계(7/1) 6월 CPI(예) 5월 실업률 5월 구인이직보고서	일 중 유 미	조기폐장(미국) 6월 서비스, 종합 PMI 6월 Caixin 종합 PMI 6월 Caixin 서비스업 PMI 6월 서비스, 종합 PMI 6월 챌린저 Job Cuts 6월 ADP 취업자 변동	유 미	휴장(미국) 영국 조기 총선 6월 서비스 PMI(7/3) 6월 종합 PMI(7/3) 6월 ISM 서비스(7/3) 5월 내구재주문(7/3) 6월 FOMC 회의록	한 일 유 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5월 가계 소비지출 5월 선행지수, 동행지수 EU,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7/4) 5월 소매판매 6월 고용동향보고서
		한 중 미	삼성 파운드리 포럼 6월 차량 판매 5월 소비자신용 6월 NFB 소기업 낙관 3년 만기 국채 입찰	한 일 중 미	6월 실업률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6월 PPI 6월 CPI, PPI 10년 만기 국채 입찰	한 미	7월 1~10일 수출입동향 금융통화위원회 6월 CPI 30년 만기 국채 입찰	중 미	6월 수출입동향 6월 PPI 미시간 소비자신뢰, 소비자기대, 1년 인플레이
7/15	7/16	7/17	7/18	7/19					
중 유 미	휴장(일본) 6월 신규주택가격 2Q24 GDP 6월 공공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5월 산업생산 공화당 전당대회	일 유 미	6월 백화점 판매 7월 ZEW 서베이 6월 소매판매 5월 기업재고 아마존 프라임 데이터	유 미	6월 CPI(확) 6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6월 산업생산 베이지북 공개 20년 만기 국채 입찰	일 유 미	6월 수출입 동향 6월 신규 차량등록 기준금리결정 6월 CB경기선행지수	일 중 미	6월 전국 CPI 6월 FDI 읍선만기일
7/22	7/23	7/24	7/25	7/26					
한 중	7월 1~20일 수출입동향 LPR 금리 결정	한 '미	6월 PPI 국민의힘 전당대회 6월 기준주택매매 5년 만기 국채 입찰(7/24)	한 일 유 미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 갤럭시Z 폴더블폰 출시 7월 PMI(예) 7월 PMI(예) 7월 PMI(예) 6월 신규주택매매 2Q24 GDP	한 미	2Q24 GDP 7년 만기 국채 입찰 6월 내구재주문	일 중 미	7월 도쿄 CPI 6월 공업기업이익, 산업생산(7/27) 6월 PCE 7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6월 미시간 1년 인플레이
7/29	7/30	7/31	8/1	8/2					
한 중	6월 관광통계 효성 변경상장(회사분할) 7월 NBS PMI 비구이위안 청산 심리	한 일 유 미	소니드 거래정지 6월 실업률 2Q24 GDP 6월 구인이직보고서 7월 CB 소비자자기대 5월 CS 주택가격지수	일 유 미	금융정책회의 6월 소매판매, 백화점 매출 7월 CPI 7월 ADP 취업자 변동 7월 챌린저 Job Cuts(8/1) 7월 제조업 PMI(8/1) 중국 관세 일부 발효(8/1)	한 일 중 유 미	7월 수출입동향 7월 제조업 PMI 7월 제조업 PMI 7월 Caixin 제조업 PMI 7월 제조업 PMI FOMC 7월 ISM 제조업	한 미	7월 CPI 7월 고용동향보고서

자료: Marketpoint, 언론 자료, 신한투자증권 / 주: (예): 예비치, (수): 수정치, (확): 확정치

신한아이 화면번호 안내



[주식/시황 정보]

0100	1054	1058	1059
주식종합	지수추이	주요 거래지표	증시자금 추이
1110	1503	1863	3101
현재가종합	업종별시세	주가등락률 상하위	시황티커
4050			
파워차트			

[선물]

2000	2450	4101	
지수선물 현재가	상품선물옵션 현재가	KOSPI 선물/옵션 분봉	

[수급 정보]

1200(당일)/1203(일자별)	1205	1306	1314
투자주체별 순매수 금액	업종별 투자주체	실시간 외국계 매매종목	외국인/기관 (장중) 매매현황 추정
1407	1457	1670	1881
투자주체별 매도/매수 상위 종목	투자자별 프로그램매매	종목별/일별 대차거래 내역	공매도 일간/누적 상위종목
4540			
장중 투자주체별 매매 추이 (Light)			

[환율/금리/원자재]

3204	3213	3214	
환율 동향	원자재 동향	국내외 금리	

[국내 포트폴리오/리서치 정보]

3150	3154		
신한아이 리서치	리서치 종목 시세		

🔥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본자료는 2024년 7월 4일 공표할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섹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	---	----	--

🔥 신한투자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4년 7월 3일 기준)

매수 (매수)	93.73%	Trading BUY (중립)	4.31%	중립 (중립)	1.96%	축소 (매도)	0.00%
---------	--------	------------------	-------	---------	-------	---------	-------